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시범연구사업

영차프로젝트 우수사례집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ww.iycyc.com



목 차

I. 영차 프로젝트의 개요 1

II. 영차 프로젝트 공모전 우수사례 7

공동주제 전개	소심유치원과 솜마루어린이집
도서대여 협력 프로그램	YWCA어린이집과 백조유치원
이동급식	시동어린이집과 협신초등병설유치원

III. 협력영역별 우수사례 31

텃밭 가꾸기	소심유치원과 솜마루어린이집
형님, 동생과 함께 하는 '띠앗누리' 활동	영일유치원과 영도초등학교어린이집
멘토링활동: 우리는 형제예요	성지초등어린이집과 성지초등병설유치원
통합 교육·보육과정	남산초등병설유치원, 무궁화어린이집과 한국몬테소리어린이집
종일반 활성화 연계활동	계남유치원과 부곡어린이집
벼룩시장	소사어린이집과 소새울유치원
자체인력을 활용한 공동 교사교육	강릉사유유치원과 조은어린이집
함께하는 어머니회	성지초등병설유치원과 성지초등어린이집
유보협력 학부모 자원봉사	백조유치원과 YWCA어린이집
차량 지원을 통한 예산 절감	매산초등병설유치원, 제일어린이집과 즐거운몬테소리어린이집

I . 영차 프로젝트의 개요

1. 추진 배경 및 개요

가. 추진 배경

-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보편화 및 유사성 증가와 특히 3-5세 유아 대상 행재정의 중복으로 유보 이원화체제에 대한 정책대안 개발의 요구 증대
- 육아정책연구소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안한 정책과제와 전략들을 구체화하여 현장 적용을 통한 유보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함.

나. 유보 협력 사업 「영차」 프로젝트의 개요

- ‘영차(영차)’는 1) 모든 사람들이 영유아의 행복과 이익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단결함을 상징, 2) 모든 대한민국 영유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든, 보육시설이든 서비스 질의 격차를 ‘제로화(0)’함을 의미
- 본 시범사업은 3개년도 사업으로 중간행정체계인 시도청과 교육청과 연계하여 현 제도권내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협력을 추진하여, 그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표 1〉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시범연구 3개년 계획

2009년(1차년도) 기반 조성기	2010년(2차년도) 정착기	2011년(3차년도) 발전·확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협력 모델 및 체제 개발 ▪ 시범기관 선정 및 현장 시범 착수 ▪ 기초선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단 협력형 추가 ▪ 유보협력 매뉴얼 개발 ▪ 시범적용 1단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적용 2단계 평가 ▪ 유보협력 컨설팅패키지 개발 ▪ 시범확산 계획 수립

2. 추진 방향, 내용 및 추진체계

가. 영차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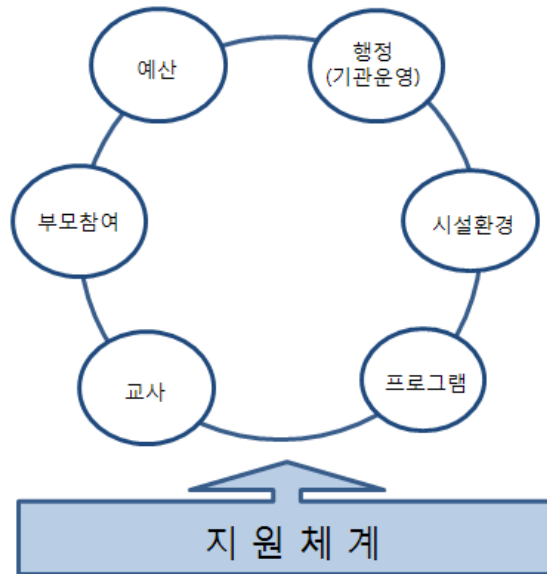
〈표 2〉 기본 추진 방향

- 유아교육과 보육이 상생(win-win) 할 수 있는 협력 모델 개발 및 실행 전략 제시
- 유보협력에 대한 현장의 주도성(ownership)을 강조하는 현장 중심적 접근 전개.
- 중간 행정체계인 지방자치단체, 즉 시도청과 교육청의 지원체계 활성화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극대화
- 현 제도권 내에서 실행가능한 협력 전략 발굴 및 시도
- 유보협력 성과와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평가의 단계적 실시

나. 추진 내용

- 단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상호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사안(예: 공간과 시설 공동 활용,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 공동준비 및 실행, 교사연수와 부모교육 공동 개최, 공개수업 등)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해당 시도청과 교육청은 시범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



[그림 1] 유보 협력영역

다. 추진 체계

- 지역별 운영 협의체 및 중앙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간 행정체계인 시도청(계장 및 업무담당자) 및 교육청 담당자(장학관 및 장학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전제로, 시범기관 관계자의 ‘당사자적’ 관점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협의체를 구성, 운영.

3. 「영차」 시범기관 현황

- 3개 시범지역, 총 22개 시범기관(유치원 10개원, 어린이집 12개소)
- 재원 영유아 총 1,905명, 교사 총 181명

〈표 4〉 유보 협력 시범기관 기본 현황

지역	기관명	설립유형	원아수	학급수	교원· 종사자수
부산	영일유치원	국공립단설	168	7	12
	영도초등어린이집	국공립	47		8
	백조유치원	사립사인	145	6	11
	YWCA부설어린이집	법인	186	12	20
	소심유치원	사립사인	189	7	13
	숨마루어린이집	민간개인	55	7	7
	성지초등병설유치원	국공립병설	72	4	6
	성지초등학교어린이집	국공립	27	3	4
경기	소새울유치원	국공립단설	80	5	8
	소사어린이집	국공립	96	12	13
	계남유치원	사립사인	90	5	6
	부곡어린이집	민간개인	85	11	12
강원	협신초등병설유치원	국공립병설	12	1	1
	시동어린이집	국공립	40	4	5
	강릉사유치원	사립사인	47	3	5
	조은어린이집	민간개인	87	5	8
	매산초등병설유치원	국공립병설	7	1	1
	제일어린이집	민간개인	32	5	6
	즐거운몬테소리어린이집	민간개인	33	5	6
	남산초등병설유치원	국공립병설	57	2	3
	무궁화어린이집	법인외	92	7	8
	한국몬테소리어린이집	민간개인	86	8	11

II. 영차 프로젝트 공모전 우수사례

〈최우수상〉

- 공동주제 전개 (소심유치원과 솜마루어린이집)

〈우수상〉

- 도서대여 협력프로그램 (YWCA어린이집과 백조유치원)

〈장려상〉

- 이동급식 (시동어린이집과 협신초등병설유치원)
-
-

교육·보육 프로그램 공동계획 및 실행 - 공동 주제 전개 -

소심유치원과 솜마루어린이집
(부산광역시)

1. 협력 동기와 목적

소심유치원과 솜마루 어린이집 교사들은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공통된 연령이 공존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함께 교사의 업무 경감과 보다 나은 수업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 주제 전개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고민하며 2009·2010년 지속적인 교사 연수와 수업 공개 및 참관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프로그램과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안과 주제 전개 과정 모두를 협력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 모든 것을 협력하기 어렵다면 처음에는 단위 활동만이라도 통일하여 협력해보자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합의 하에 공동 주제 전개를 계획하게 되었다.

소심유치원과 솜마루 어린이집의 공동 주제 전개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을 서로 이해하고 정보를 교류하여 보다 나은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업계획안 및 교재·교구를 교환하여 수업 준비에 대한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함께 공동 주제 전개를 실시하게 되었다.

2. 협력 준비 과정

가. 협력활동 계획 수립과 협의 과정

2010년 12월 각 기관에서 작성한 양 기관의 만3·4·5세 연간 교육 계획안을 가지고 공통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협의를 실시하였다. 양 기관이 각 각 작성한 연간교육 계획안에서 동일한 시기와 연령·공통된 주제를 찾아서 비슷한 시기에 소심유치원의 만 4세와 솜마루 어린이집의 만4·5세(혼합연령)가 5월 <가족> 주제, 각 기관 만 3세

7월 <여름> 주제, 소심유치원 만 5세와 솜마루 어린이집의 만4·5세(혼합연령)가 9월 <우리나라>를 선정하였다.

그 후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주제 전개 1~2주 전에 먼저 활동 전개 방법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였다. 이 때 각 기관에서 준비해 온 계획안을 서로 비교하여 주간교육계획안 및 일일교육계획안의 형식을 통일하였다. 그리고 공동 주제의 주제망을 작성하여 주제 전개 기간의 소주제를 협의하였다. 수업 자료도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주간교육계획안의 수업 자료 및 자유선택활동 교구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였다.

나. 기관간의 협력 역할 분담

소심유치원	솜마루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주간교육계획안 및 일일교육계획안 양식 통일 <input type="checkbox"/> 공동 주제 주간교육계획안 초안 작성 후 양 기관의 내용 통일 및 보완 <input type="checkbox"/> 주간교육계획안에 명시된 교구 및 수업자료 제공 <input type="checkbox"/> 공동 주제 전개 시 일일교육계획안 작성	<input type="checkbox"/> 주간교육계획안 및 일일교육계획안 양식 통일 <input type="checkbox"/> 공동 주제 주간교육계획안 초안 작성 <input type="checkbox"/> 주간교육계획안에 명시된 교구 및 수업자료 제공 <input type="checkbox"/> 공동 주제 전개 시 일일교육계획안 작성

다.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공동 주제 전개를 준비하며 주간교육계획안 및 일일교육계획안 양식의 통일, 전개 과정 방법 등 사전 협의가 많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양 기관이 가까이 위치하지 않기에 메일과 전화, 팩스 등을 많이 활용했지만 통신으로만 정보를 교환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아 일과 운영이 끝난 후 양 기관을 방문하여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공동 주제 전개가 시작되기 2주 정도 전에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직접 만나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협의하였고, 각 기관의 교사들이 서로 번갈아가며 상대 기관을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둘째, 양 기관의 수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수업을 선정하여도 수업 전개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일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심유치원은 각 교실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이 용이하고 많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솜마루어린이집에 제공해 주었으나 솜마루어린이집은 활용이 용이하지 않아 모든 자료를 실물 또는 그림자료로 바꾸어 써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그래서 되도록 양 기관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수업 내용을 선정하고 소심유치원에서 보유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공도 사전에 미리 이루어져 솜마루어린이집에서 그림자료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셋째, 소심유치원에서는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을, 솜마루 어린이집에서는 몬테소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프로그램이 다른 점들이 많고 각 협력기관이 가지고 있는 교구도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간교육계획안에서 자유선택활동을

공통적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먼저 각 기관에서 모두 할 수 있는 놀이나 교구를 선정한 뒤 기록하고 다음으로 상대 기관에 제공해 주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구를 선택하여 주간교육계획안에 제시하였다.

3. 협력 실행 과정

가. 협력활동 내용

2011년에 소심유치원과 솜마루어린이집은 만 3·4·5세 모두 연간교육계획안에서 하나의 공통 주제를 정해 공동 주제전개를 실시하였다. 먼저 양 기관의 주간교육계획안과 일일교육계획안의 양식을 비교하여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하였다. 그 후 5월에는 만 4세가 <가족> 주제를 1주 동안 함께 전개하였고, 7월에는 만 3세가 <여름> 주제를 여름방학이 들어가기 전 1주 2일 정도 함께 전개하였다. 9월에는 만 5세가 <우리나라> 주제를 2주 동안 함께 전개하였다.

각 주제 전개 시 수업안과 수업 자료 및 교구를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였으며, 주제에 맞는 현장학습도 양 기관이 함께 실시하였다.

나. 협력 활동 실행 절차

1) 공동 주제 전개 사전 협의 실시

양 기관의 일일 교육(보육) 계획 안 양식을 서로 메일로 교환한 후 양 기관에서 협의 전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직접 만나 양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절충하여 주간교육계획안과 일일교육계획안의 양식을 통일하였다.

통일된 양식에 먼저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제 전개 내용을 담아 교환한 후 양 기관이 만나 서로 다른 주간교육계획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일하였다. 이 때 활동 주제에 맞는 수업자료 및 교재·교구를 선정하여 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의논하여 분담하였고, 일일교육계획안 작성도 요일별로 분담 작성하여 메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일일교육계획안을 교환할 때 수업 자료도 함께 교환하기로 의논하였다.





〈“우리나라의 상징” 이야기 나누기〉



〈공동으로 진행한 “전통놀이 한마당”〉

4. 협력 성과

■ 유아

- 공동 주제 전개를 통해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질 높고 다양한 교육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공동 주제 전개를 통해 다양한 교재·교구 활용을 통한 활동의 기회가 많았다.
- 공동 주제 전개를 통해 각 기관의 좋은 교육 내용을 함께 접하면서 양 기관의 모든 유아들이 최상의 교육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
- 각 기관의 유아들이 공통된 주제를 함께 전개함으로써 흥미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유아의 사회성이 발달되었다.
- 공동 주제 전개 과정 중 공동 견학을 계획하여 평소에 가지 못했던 새로운 견학지에서 양 기관의 유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 부모

- 주간 교육계획안의 활동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받아 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양 기관 모두 유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양 기관의 공동 주제 전개를 통해 유보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 양 기관이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공동주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통해 각 기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높아졌다.

■ 교사

- 일일교육계획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수업 계획 및 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다.

-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좋은 장점들을 수용하여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 자료 공유를 통해 수업 자료 및 교구 만들기에 관한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 공동 주제 전개를 위해 함께 협의하고 역할 분담하여 진행함으로써 교사가 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유아 관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 유아교육과정과 보육과정에 대해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2012년부터 시행되는 누리 공통과정을 선행해 봄으로써 교사로서 가질 수 있는 공통과정 운영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다.

■ 기관

- 공동 주제 전개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누리 교육과정(만5세 공통교육과정)을 선행하여 실시하는 경험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치원 교육과정의 계획과 실행·평가에 관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5. 협력활동 평가 및 향후 방향

가. 협력활동의 목표 달성 정도 평가

- 소심유치원과 솜마루 어린이집은 모든 공통 연령에 걸쳐 총 세 번의 공동 주제 전개를 실시하며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 활동중심 프로그램과 몬테소리 프로그램을 서로 이해할 수 있었다.
- 수업과 관련된 정보 및 수업계획안, 교재·교구를 교류하여 보다 나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수업계획안 및 교재·교구를 교환하여 수업 준비에 대한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었다.

나. 협력활동 계획 및 과정에 대한 평가

1) 협력 활동 계획의 적절성

- 2010년에 계획되었던 2011년 연간교육(보육)계획안에서 양 기관의 시기, 연령, 주제, 유아의 흥미를 고려하여 공동 주제 선정이 적절이 이루어졌다.
- 효과적인 교육과 보육의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해 동일 연령의 주간교육(보육)계획안 통일과 일일교육(보육)계획안 양식 및 수업 내용을 양 기관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되어 졌다.

- 교수자료 및 교재·교구의 전달 시기와 전달 방법, 자료의 종류에 대한 계획 공동 주제 전개 시기보다 사전에 적절히 이루어졌다.

2) 사전 협의와 준비 과정 적절성

- 양 기관의 동일 연령 교사 간에 통신을 이용하여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직접 만나 서로 토의 후 역할 분담 및 수업 전반에 관한 협의를 함으로써 준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 양 기관의 다른 수업환경을 고려하여 수업 자료를 알맞게 서로 제공되어졌다.
-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를 적절히 선정하였고, 각 기관의 차량을 통해 서로 전달하여 이동 시간을 절약하였다.

3) 협력 실행의 적절성

- 만 4세 <가족> 공동 주제 전개 시 각 기관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간계획안을 통일하였고, 대·소그룹활동을 중점적으로 공동 전개하였다.
- 만 3세 <여름> 공동 주제 전개 시 자유선택활동을 포함한 주간계획안 양식을 통일하였고, 일일계획안을 통일하여 작성한 후 교수 자료와 공유하였다.
- 만 3·4세 공동 주제 전개의 평가를 바탕으로 만 5세 <우리나라> 공동 주제 전개 시 통일 된 주간계획안과 일일계획안 작성, 교수 자료 및 교구 공유, 공동 현장학습 및 행사 진행으로 주제 전개에 대한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졌다.
- 각 기관의 교사 수에 따라 일일교육(보육)계획안 작성과 교수 자료 및 교구 제작에 대한 업무를 분담하여 시간과 업무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다.
- 양 기관 교사들 간의 통신을 이용한 잦은 협의를 통해 실행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다. 향후 개선 방안

- 공동 주제를 전개하며 수업의 질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양 기관 교사 간 열린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에 임할 때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평가하는 행정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주간교육계획안과 일일교육계획안의 양식을 통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각 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안을 통일할 수 있도록 양보와 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 기관의 수업 자료 및 교재·교구의 공동 구입 등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영아와 유아가 함께하는 생각 쓱쓱 도서대여프로그램

백조유치원과 YMCA어린이집
(부산광역시)

1. 협력 동기와 목적

현대 사회는 한 자녀 가족과 취업모가 증가하면서 영·유아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협력하기, 나누기, 배려하기, 양보하기 등의 친사회적 경험을 할 기회가 부족하며, 특히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의 경험을 가질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백조유치원 만 5세 유아와 YMCA어린이집 만1,2세 영아가 “도서대여프로그램”으로 형제, 자매간의 정을 느끼고 협력하며, 발달 특성이 다른 영아·유아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함양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프로그램을 모색하게 되었다. 만 5세 유아에게는 사회성과 언어적 유능성 향상, 언니·오빠로서의 협력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어린 영아들에게는 형제애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친사회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시범사업 “영차”를 통해 몇 번의 협력의 기회를 갖던 중, 2010년 10월 백조유치원의 만5세 유아들이 동화구연 대회를 준비하면서 YMCA어린이집 만 1,2세 영아들을 유치원으로 초대하여 동화구연을 들려주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백조유치원 만5세 유아들이 YMCA 어린이집 영아들에게 동화구연을 들려주고 책을 읽어줌에 따라 영아들은 자연스럽게 도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백조유치원 만5세 유아들이 YMCA어린이집 동생들을 위해 “동화를 읽어주는 날”을 만들기를 제안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만나서 영·유아가 책을 읽으며, 형제애를 느끼고 배려하는 “영차” 협력 프로그램을 하기로 하였다.

2. 협력 준비 과정

가. 협력활동 계획 수립과 협의 과정

1차 교사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의 진행과 일정을 정하였다. 5월 교사협의회에서는 두 기관의 원활한 도서대여를 위해 두 기관의 도서 목록 대장을 공유하고 각 원에 비치해 두기로 하였으며, 도서관 활용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4월26일(화)에는 백조유치원 놀이터에서 만나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탐색하고 마음에 드는 책을 선정하도록 하여 책과 함께 도서관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인근에 근접해 있지 않아 차량으로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두기관이 상호대여해주기로 협의하였다.

일시		협의내용	장소
3월	3월 11일(금) 교사협의회	프로그램 일정 정하기	백조유치원 국화반
4월	4월 8일(금) 교사협의회	5월 교사 협의회 때 도서, 교재, 교구 목록표 공유	YWCA 어린이집 교사실
	4월 26일(화) 생각쑥쑥 도서대여프로그램	두 기관의 주제에 맞는 도서 선정하여 목록 공유	백조유치원 도서관
5·6월	5월 20일(금) 교사협의회	두기관의 만 5세 도서대여 후 작성하는 사후 활동지 공유	백조유치원 국화반
	5월 31일(화) 생각쑥쑥 도서대여프로그램	동생에게 들려주고 싶은 동화 선정하여 읽어주기	백조유치원 도서관
7·8월	7월 8일(금) 교사협의회	“책나라로 여행을 떠나요” 공동제본을 위해 협의	YWCA 어린이집 교사실
	8월 10일(수) 1학기 교직원평가회	1학기 도서대여프로그램 평가	바르미 칼국수
9월	9월 1일(월) 교사협의회	공동제본 된 “책나라로 여행 을 떠나요”를 가정으로 배부	백조유치원 장미반
	9월 27일(화) 생각쑥쑥 도서대여프로그램	영아도서 선정하여 읽어주기	YWCA어린이집 민들레 도서관
10월	10월 17일(월) 교사협의회	두기관의 교사가 선정한 추천도서 목록 만들어 가정으로 배부	백조유치원 국화반
	9월 27일(화) 생각쑥쑥 도서대여프로그램	동생에게 구연동화 들려주기	YWCA어린이집 민들레 도서관
11월	11월 17일(월) 교사협의회	2011년 도서대여프로그램 교사평가회	백조유치원 국화반
	11월 29일(화) 생각쑥쑥 도서대여프로그램	주제에 맞는 도서 선정하여 준비해두기	YWCA어린이집 민들레 도서관

나. 기관간의 협력 역할 분담

백조유치원	YWCA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동생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도서를 의논하여 선정하기 <input type="checkbox"/> 인사나누기, 도서관에서 지켜야할 약속 등은 장미반 교사가 진행하기로 함 <input type="checkbox"/> 활동사진은 메일로 공유함	<input type="checkbox"/> 도서대여 활동 후 영·유아들과의 소감나누기는 매미반 교사가 진행하기로 함 <input type="checkbox"/> 도서대여를 위해 도서관 가방을 준비하기로함 <input type="checkbox"/> 영아들이 좋아하는 책 목록을 선정함

다.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2011년 1학기는 어린이집 평가 재인증과 유치원 평가 준비로 인해 두 기관이 협의회 일정을 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사들이 사전에 전화와 메일로 프로그램의 일정과 내용을 의논하여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었다.

영·유아들이 한 장소에 모이려면 차량으로 20분정도 이동해야 하기에 두 기관 차량을 협의하여 이용하였다. 정기적 이용계획과 시간을 정하여 메일 또는 전화로 사전에 알리기는 했지만 두 기관의 일정이 다르기에 이용의 어려움이 있었다.

3. 협력 실행 과정

가. 협력활동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1년 4월~12월 넷째주 화요일 (월 1회) 10시 30분~11시30분
- 장소 : 백조유치원 도서관, YWCA어린이집 민들레 도서관

나. 협력활동 대상

- 백조유치원 만5세 38명(교사 2명)
- YWCA어린이집 만1세 5명(교사 1명), 만2세 30명(교사 4명)

다. 협력활동 내용



차량을 이용하여 백조유치원도서관으로 이동해요



내 작은 어디 있을까?
형과 동생이 짝이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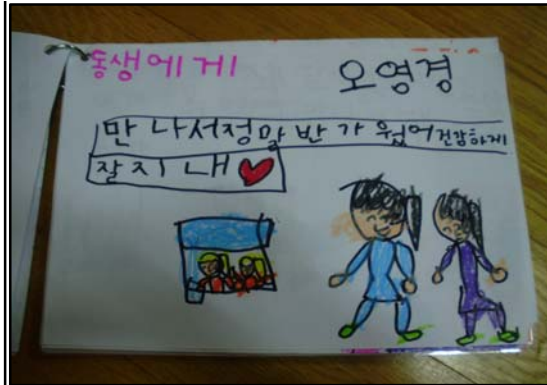
동생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찾아 읽어요.



동생들과 함께 책 읽은 느낌을 이야기 나누어요.



만5세 유아들은 동생에게 그림편지를 선물하고 YWCA 어린이집 영아들은 노래 선물을 해요.



백조유치원 장미반 친구가 어린이집 짝지 동생에게 편지를 적었어요.



“책나라로 여행을 떠나요” 공동제본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정과의 연계프로그램 “책나라로 여행을 떠나요” 활동내용을 부모와 유아가 함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많아졌어요.

라. 협력활동 방법

- 교실에 도착하여 영아와 유아가 함께 자유선택활동을 한다.
- 정리 음악이 나오면 모두 모여 인사를 나눈후 오늘의 활동을 알아본다.

- 백조유치원 유아(만 5세)와 YWCA어린이집 영아(만 1,2세)가 짝을 정한다.
- 짝과 인사를 나눈 후 도서관으로 이동한다.
- 동생들과 함께 책을 고른 후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 도서를 읽고 난후 대여하고 싶은 도서가 있으면 도서대장 대출표에 만 5세 유아
가 영아의 이름과 날짜, 도서명을 기록한 후 영아들의 대출을 돕는다.
- “생각 쓱쓱 도서대여프로그램”을 마친 후 영아와 유아가 서로의 느낌을 나눈 후
안아주고 귀가한다.

4. 협력 성과

영아발달특성과 영아반 운영 및 건강·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 유치원 운영 및 수업장학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두 기관의 교육과정(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연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영·유아들은 친사회적 행동이 증진되었고, 정서함양과 언어적 상호작용의 효과로 영·유아 모두 책을 좋아하게 되었으며 두 기관 모두 영·유아, 교사가 친밀감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책 읽기에 즐겁게 참여함 · 영·유아들이 서로에게 그림편지, 노래를 선물함으로써 형제애를 느낌 · 교실 내에서도 또래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함 · 정서 함양과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책을 좋아하게 됨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들과 개별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부족한데, 만5세 유아들이 영아들에게 개별적으로 책을 읽어 줌으로써 언어적·정서적인 상호작용 기회가 많아짐에 대하여 만족함 · 자녀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되었다며 만족함 · 자연스러운 책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한글교육, 감수성, 풍부한 언어(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발달 등 전인적 발달을 돕고 있어 만족함 · 가정과의 연계프로그램 “책 나라로 여행을 떠나요” 활동내용을 부모와 유아가 함께 함으로써 자녀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많아졌다며 만족함
교사 및 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2세 영아들의 발달 특성, 효율적인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연계방법에 대한 이해 향상 · 사후 활동 가능한 내용을 선정하여 책(책나라로 여행을 떠나요)을 만드는 과정에서 활동내용을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됨 · 교육과 보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각 원의 실정에 적합하게 응용·적용할 수 있으며,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 쓱쓱 도서대여프로그램” 활동내용을 두기관이 책으로 공동 제본하여 경비가 절감됨 · 두기관의 영·유아·교사 모두가 서로 친근하게 협력하는 기회가 됨

5. 협력활동 평가 및 향후 방향

가. 협력활동의 목표 달성 정도 평가

유보 협력 사업 “영차 프로젝트”가 두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 된 것은 현장에서 직접 진행하는 기관장과 교사간의 끊임없는 교류와 협의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월 1회의 교사협의회와 교사 연수, 교사문화체험을 통해 두 기관이 서로에 대해 친숙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협력활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두 기관의 교사들이 함께 의논하여 보다 발전된 협력방법을 모색하였다.

나. 협력활동 계획 및 과정에 대한 평가

두기관의 영·유아들의 첫만남은 백조유치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영아(만1,2세)들이 낯선 환경과 낯선 오빠, 언니들과의 만남으로 울음을 보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첫 만남은 백조유치원 만5세 유아들이 YWCA어린이집 영아반을 방문하여 영아들이 친숙한 분위기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점차 백조유치원 만5세 유아들이 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글을 읽는 유아는 동생들에게 재미있게 읽어주려고 노력하였고,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찾아 동생들을 도와주고 그림이라도 설명해 주려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 향후 개선 방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유아들의 연령을 확대하여 정서함양과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 낮가림을 하는 영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첫 만남은 영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기로 하며, 책 읽어주는 장소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격월로 정하여 만5세 유아들에게 영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동 급식

시동어린이집과 협신초등병설유치원
(강원도 홍천군)

1. 협력 동기와 목적

홍천군의 협신초등병설유치원과 시동 어린이집은 도보로 10분 정도로 인접해 있는 기관이다. 협신초등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급식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급식이 중단되므로 방학 중 유아들의 급식문제는 협신초등병설유치원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현재까지 방학기간에는 유치원의 담임교사와 종일반교사가 자체적으로 밥을 준비하고 반찬은 아이들이 도시락을 가져와 급식을 해결하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시동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자체 급식시설을 갖추고 방학 없이 운영되고 또한 차량도 보유하고 있었다. 협신초등병설유치원의 원아가 10명 이내로 적고 두 기관은 근거리(도보로 10분, 자동차로 2분)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유치원은 시동 어린이집으로부터 방학 동안 급식을 제공받아 급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2. 협력 준비 과정

가. 협력활동 계획 수립과 협의 과정

2009년 7월 21일 처음으로 시동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교사 및 원장, 협신초등병설유치원의 교사가 참석하여 영차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월별 협력 추진내용을 협의하면서 방학 중 급식지원(이하 이동급식)을 위한 세부 협력 내용을 협의하였다.

이동급식과 관련하여 시동어린이집의 협조 가능성, 이동급식 기간, 이동에 필요한 도구, 배달 주체, 급식비용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다.

시동어린이집의 경우 위생안전의 문제, 조리사의 업무 부담, 급식 배달의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지만 협신초등병설유치원과의 협력의 일환으로 이

동급식을 수락하게 되었다.

1차 이동급식 지원기간은 유치원의 여름방학 기간 중 8월 3일~27일로 총 19일간으로 결정하였고, 이동급식에 필요한 용기는 장기적인 협력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가운데 새로이 구입하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가지고 있던 용기를 각각 한 세트씩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동급식의 배달은 시동어린이집에서는 협신병설유치원에서 급식을 가지러 오기를 원하였으나, 방학 중이라 유치원에 여유 인력이 없는 관계로 어린이집에서 배달도 책임지기로 하였다. 급식비용은 시동어린이집 급식비 산출근거인 1일 1,745(간식비포함)원을 근거로 배달비를 포함한 점심비용으로 1일 유아 1인당 1,500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하였다.

1차 이동급식 지원이 완료된 이후 9월 4일 영차교사협의회를 통하여 이동급식 활동의 긍정적 결과와 활동 진행 시 어려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회의 결과 유치원의 유아와 학부모의 만족 등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 겨울 방학에도 2차 이동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단 급식 배달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동 부담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12월 22일 영차 교사협의회시 2차 이동급식은 2010년 1월 7일 ~ 2월 9일로 총 23일간 실시하며 1월 7일~22일은 협신병설유치원에서 급식이동을 담당하고 1월 25일~2월9일은 시동어린이집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급식비용 등 기타 관련 사항은 1차 이동급식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차 이동급식이 완료된 이후 협신초등병설유치원과 시동어린이집의 2010년도 유보협력 연간계획 수립 시 두 기관이 매우 근거리에 위치하지만 여름철 높은 기온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을 우려하여, 어린이집에서는 겨울방학 동안의 이동급식만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이동급식이 유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협력 사안임을 감안하여 여름방학 동안은 그 기간을 최소로 조정하여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원주 오크밸리에서 개최되었던 강원지역 전체 교사워크숍의 2010년도 계획에 대한 재협의 과정에서 유치원에서는 여름방학 기간의 이동급식 안전에 대한 우려를 받아들이고 겨울방학기간에만 계획대로 유지하고 여름이동급식은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전체 교사워크숍 이후 영차교사협의회를 통하여 3차 이동급식 일정이 2011년 1,2월에 걸쳐 20일정도로 정해지고 세부관련 사항은 변동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11년 1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23일간 이동급식이 진행되었다. 급식외에 원아들에게 간식이 제공되어야 하나 병설유치원의 교사 두 명이 격주로 근무하는 관계로 간식구입의 어려움이 있었고, 시동어린이집에서는 주문서 발주후 식재료를 배달받는 시스템의 편리를 이용 급식과 간식1회 제공으로 변경하였다. 간식이 추가되며 식비산정을 변경하여야 하였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협신병설유치원 원아의 급식

비 책정기준 1일 급식비(급식과 간식포함) 3,130원을 기준으로 병설유치원의 건의로 2011년 겨울방학 급식비는 3,13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나. 기관간의 협력 역할 분담

협신초등병설유치원	시동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학 중 이동급식 지원 협조 의뢰 공문 발송 □ 이동급식에 필요한 용기 1세트 준비 □ 급식일지 작성 □ 급식비 산출 및 시동어린이집에 급식비 지급 □ 2차 이동급식(겨울방학 급식)부터 시동어린이집과 공동으로 배달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지원 식단 구성 □ 식재료 구입 □ 급식조리담당 □ 이동급식에 필요한 용기 1세트와 배달 담당 (2차 이동급식부터는 유치원과 분담) □ 3차이동급식부터 간식 추가 제공

다.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시동어린이집은 협신초등병설유치원을 위하여 방학 중 이동급식 지원을 수락하였지만 이에 수반되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급식 배달의 문제였다. 어린이집에 조리를 위한 취사부는 배치되어 있어 급식 지원에는 무리가 없지만 종사자들 모두 각자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유치원으로 급식 배달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방학 동안 여유인력이 없는 관계로 1차 이동급식 시에는 어린이집 측에서 총 19일 동안 배달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차 시행 후에는 어린이집에서 급식 배달이 큰 부담이 됨을 확인하고 유치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2차 시행 시에는 양 기관에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급식 준비는 시동어린이집 취사부에게 기본 업무 외에 부과되는 것으로 업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시설장이 유보협력에 대한 취지와 혜택에 대한 이해를 구하여 이동급식에 동의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문제는 이동급식을 행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급식비 산출 근거가 없는 점이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급식비 산출근거(간식비 포함하여 1인당 1일 1,745원)에 의하여 점심 비용과 배달 비용을 감안하여 1인당 1일 1,500원으로 산정하였다.

※ 2011년 겨울이동급식시 간식제공 추가, 물가상승률 감안 1일식비 3,130원으로 상향조정

3. 협력 실행 과정

<2009년도 여름 이동급식>

- ① 8월 이전에 협신초등병설유치원에서는 이동급식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시동어린이집에서는 8.3~8.27의 식단을 발송함으로써 이동급식에 대한 사전 절차 완료
- ② 8월 3일부터 19일간 시동어린이집에서 식자재를 구입하여 조리한 후 유치원에 11시 50분까지 배달
- ③ 유치원에서는 매일 급식일지를 작성하여 급식관리를 담당
- ④ 유치원은 이동급식이 끝나고 급식비를 산정하여 시동어린이집에 지급

<2009년도와 2010년도 겨울 이동급식>

※ 겨울방학중(1월 7일 ~ 2월 9일) 이동급식 시 여름방학 이동급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하되, 급식 배달은 양 기관에서 공동으로 분담하여 실시

<2011년도 겨울이동급식>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되 협신병설유치원원아의 간식도(오전) 함께 준비 제공하고 물가상승률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급식비를 3,13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4. 협력 성과

협신초등병설유치원 측면에서는 방학동안 추가 인력의 고용 없이 어린이집의 인력을 활용하여 급식을 함으로써 부모님과 유치원교사에게 지워져 있던 급식제공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균형있는 영양을 고려한 식단으로 짜여진 급식이기에 믿고 안심할 수 있었다. 유아들 또한 유아의 입맛과 영양을 고려한 적절한 급식에 대

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학부모와 유아의 만족도 상승은 이후 원아모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기관 차원에서 급식비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양 기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었기에 적절한 범위내의 예산으로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시동어린이집의 측면에서는 식자재 구입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단가를 줄임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협력기관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자긍심을 느끼고 유치원과의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5. 협력활동 평가 및 향후 방향

가. 협력활동의 목표 달성 정도 평가

협신초등병설유치원과 시동어린이집 간의 이동급식을 통한 협력은 한 기관의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다른 기관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양기관에서 예산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에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을 통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기관장과 교사들 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다.

나. 협력활동 계획 및 과정에 대한 평가

이동급식 활동 계획 및 과정 중에 시동어린이집의 측면에서 취사부 업무량 증가, 급식 배달 업무 부담 등 어려운 점들이 발생했지만 협신초등병설유치원과의 교사협의회 또는 담당 교사간의 전화나 전자메일을 통한 긴밀한 협의, 그리고 활동 실행 후 평가를 통하여 서로의 어려운 점을 협의하고 조율을 함으로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었다.

다. 향후 개선 방안

본 협력기관에서 이동급식활동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음식배달시 음식이 변질되지 않게 안전하게 해야하는 것과 배달을 어느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에는 이동시간 동안 음식의 변질을 막기 위해 아이스박스를 사용하였고, 2차년도에는 여름방학 중 이동 급식은 취소하였다. 배달의 불편함은 기존에 진행했던대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담당하거나 유치원의 원아가 적고 두 기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특정요일에는 유치원의 원아가 어린이집으로 이동하여 급식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방학 중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병설유치원과 근거리 어린이집 간에 이동급식 협력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급식 배달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별도의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양 기관 모두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급식을 배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 듯하다. 급식할 인원이 많다면 어렵겠지만, 본 기관처럼 소규모 인원이고 거리가 가깝다면 음식을 배달하기보다 직접 유아들이 시설로 이동해서 급식을 한다면 식중독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어 여름급식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단, 방학기간동안의 병설유치원의 인력상황(예: 유치원 교사와 종일반 교사가 교대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음)과 이용 가능한 차량의 유무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취사부의 업무 증가에 대한 대처, 취사도구의 확충, 이동급식에 필요한 안전한 용기 준비 등도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III. 협력영역별 우수사례

텃밭 가꾸기

소심유치원과 솜마루어린이집

(부산광역시)

1. 협력 동기와 목적

소심유치원은 텃밭을 활용한 식물 가꾸기와 자연체험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텃밭 가꾸기 활용방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솜마루어린이집은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한 텃밭이 있고, 유아들과 함께 심고 가꾸는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소심유치원은 2009년 영차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협력기관인 솜마루어린이집의 도움을 받아 식물 가꾸기에 대한 정보와 함께 텃밭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소심유치원과 솜마루어린이집이 협력하여 실행 해오던 “텃밭 가꾸기 교육활동”은 유아들에게 공동으로 자연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고, 다양한 식물재배를 통해 관찰력, 탐구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또한 텃밭 가꾸기 경험으로 유아들이 식물의 성장과정을 체험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자연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었다. 텃밭에서 기르는 농작물의 모종을 공동구매 하고 넓은 공간의 텃밭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소심유치원의 경우 만 5세를 중심으로 텃밭 가꾸기 협력이 이루어져 모든 연령의 유아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2011년에는 좀 더 다양한 작물재배(땅콩, 옥수수 등)와 소심유치원 내의 작은 텃밭을 이용하여 다양한 자연체험학습 경험을 모든 연령의 유아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텃밭 가꾸기 활동을 더욱 확장하여 계획하며, 상호 기관이 텃밭 가꾸기에 대한 정보 교류를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협력 준비 과정

가. 협력활동 계획 수립과 협의 과정

텃밭 가꾸기 협력 활동은 협력 기관의 유아들에게 좋은 자연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텃밭을 이용하여 장소 대여를 위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2011년에는 연간 활동 계획에 따라 2009·2010년부터 협력해 오던 텃밭 가꾸기 활동을 지속하되 모종 구입에서 잡초 제거, 관리를 위한 각종 도구 구입 등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 기관간의 협력 역할 분담

솜마루어린이집	소심유치원
<input type="checkbox"/> 텃밭 제공 <input type="checkbox"/> 모종, 씨 구입 <input type="checkbox"/> 텃밭 가꾸기에 사용할 작물 선정 <input type="checkbox"/> 작물종류, 파종, 수확에 대한 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모종, 씨 구입 <input type="checkbox"/> 작물종류, 파종, 수확에 대해 제공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유치원 텃밭에 작물 재배 실시

다.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솜마루어린이집에서 텃밭을 제공해주어 텃밭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심유치원 교사들은 날씨와 온도에 따라 작물의 재배 시기와 관리 시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 세심한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해 작물을 재배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텃밭 가꾸기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사전 협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009·2010년에는 교사들이 모인 협의회나 교사 연수 이후의 시간을 활용해 작물의 재배 및 수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지만, 2011년부터는 전화나 메일을 이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가꾸는 작물뿐만 아니라 양 기관에서 함께 재배 할 작물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모종 공동 구입 및 잡초 제거에 필요한 도구 구입 등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3. 협력 실행 과정

가. 협력활동 내용

작년에 이어 2011년에도 소심유치원 유아들이 솜마루어린이집 텃밭에 배추, 감자 등 작물을 심고 거두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먼저 2010년 11월에 심어둔 배춧잎을 고르고 잎을 묶는 활동을 하였고, 12월에는 배추를 수확한 뒤 김치 담기 활동을 전개하였

다. 2011년 4월에는 솜마루어린이집 텃밭에 감자 모종을 심고, 감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관찰하였다. 6월에는 감자를 캐어 함께 먹어보는 활동을 전개하였고 9월에 배추 모종과 무씨 심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나. 협력 활동 실행 절차

1) 배추 묶기

2010년 11월 22일 솜마루어린이집 텃밭에 심어둔 배추를 소심유치원 만 5세 유아들이 배추 묶기 자연체험학습을 하였다. 솜마루어린이집에서 소심유치원 유아들에게 배추 잎 고르기 및 묶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유아들은 배춧잎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배추의 시든 잎을 골라주었다. 그리고 자란 배추 잎이 벌어지지 않고 속이 꽉 찬 배추가 되도록 끈으로 묶어보았다. 또한 배추 밭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는 활동을 하였다.



2) 배추 수확하기

2010년 12월 06일 솜마루어린이집 텃밭에 심어둔 배추를 소심유치원 만 5세 유아들이 배추 수확하기 체험학습을 하였다. 솜마루어린이집에서 소심유치원 유아들에게 배추 수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유아들은 자란 배추의 잎을 관찰하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배추를 함께 뽑아보았다. 그리고 수확한 배추의 시든 잎을 떼어낸 후 함께 읊겼다. 유아들이 다듬은 배추를 교사가 배추의 뿌리 부분을 잘라내어 자루에 담고 수확한 배추를 유치원으로 가져와 유아들과 김치담기 요리 활동을 하였다. 배추 묶기와 수확하기, 김치 담기 과정을 모두 체험해 보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3) 감자심기

2011년 4월 1일 솜마루어린이집 텃밭에 소심유치원 만 5세 유아들이 감자모종을 심으러 갔다. 텃밭이 더욱 좋은 장소로 바뀌게 되어 솜마루어린이집에서 텃밭의 위치에 대해 안내를 해주었다. 텃밭으로 가는 길에 흐르는 시냇물과 다양한 식물(해바라기, 도라지꽃, 미나리, 상추, 오이)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소심유치원 유아들에게 감자 모종을 심는 방법을 소개한 후 유아들은 감자 모종 싹을 관찰하고 모종을 흙 속에 심어 보았다. 그리고 감자 모종을 심은 주변에 잡초와 돌맹이를 정리하여 텃밭 고르기 활동을 하였다.



4) 감자 싹 관찰 및 가꾸기

감자 싹 관찰을 위해 솜마루어린이집 텃밭의 방문 날짜를 사전에 의논하였다. 2011년 5월 30일 소심유치원 만 5세 유아들이 감자 싹에게 줄 물을 준비하여 솜마루어린이집 텃밭으로 이동하였다. 유아들은 4월에 각 반이 심었던 감자 모종의 싹(줄기, 잎, 꽃)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감자 싹에 물을 주고,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가꾸는 활동을 하였다. 우천으로 인해 감자 싹을 가꾸기 위해 자주 들르지 못하여 잡초 제거에 시간이 걸렸다.



5) 감자 캐기

2011년 6월 10일 솜마루어린이집 텃밭에 소심유치원 만 5세 유아들이 심어둔 감자 캐기 체험학습을 하였다. 유아들은 자란 감자 꽃과 잎을 관찰 후 줄기와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였다. 유아들이 흙 속의 감자를 캐낼 수 있도록 교사들이 호미로 흙을 제거한 후 유아들이 감자 흙 속에서 주워 자루에 담았다. 그리고 뽑은 줄기와 잡초를 밭의 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두었다. 이 후 수확한 감자를 유치원으로 가져와 썰어서 유아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다.



6) 배추 모종 및 무씨 심기

배추 모종과 무씨를 심기 위하여 배추 모종과 무씨의 구입계획을 세우고 공동구매를 하였다. 2011년 9월 5일 솜마루어린이집 텃밭으로 소심유치원 만 5세 유아들이 배추 모종 및 무씨 심기 체험학습을 하였다. 솜마루어린이집에서 소심유치원 유아들에게 모판에서 배추 모종 빼는 법과 심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유아들은 배추모종 및 무씨를 관찰한 후 모종을 흙 속에 심어보았다. 그리고 배추모종 및 무씨를 심은 밭에 물을 주고 주변의 잡초를 정리하였다.



4. 협력 성과

■ 유아

- 지속적인 텃밭 가꾸기 체험학습을 통해 식물 가꾸기와 관찰력, 문제 해결 능력과 탐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씨 뿌리기와 모종심기부터 가꾸기와 수확하기까지의 체험학습을 통해 자연에 대한 생명존중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다.

■ 부모

- 가정에서 부모님이 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연체험활동은 일회적이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 대신 자연체험학습에 대한 정보를 유치원에서 제공해 줄 수 있었다.

■ 교사

- 교사들은 텃밭 가꾸기 활동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여 작물 재배와 텃밭 가꾸기를 통해 기관과 교사의 실·내외 식물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아이들이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감자, 무, 배추 등 여러 작물들을 수확하는 경험을 교실의 수업까지 확장함으로써 질 높은 텃밭 가꾸기 협력 활동을 제공할 수 있었다.

■ 기관

- 교사들이 텃밭 가꾸는 경험과 지식들을 활용하여 유치원내에서도 다양한 작물을 가꾸어 봄으로써 유치원 내에 있는 텃밭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다.
- 텃밭 가꾸기 협력 활동을 통해 텃밭 사용과 모종 구입의 경비를 절감하고 작물재

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사의 도움으로 작물재배에 대한 연수경비가 절감되었다.

- 아이들이 직접 재배한 고구마, 감자, 무, 배추 등 여러 작물들을 수확하여 요리 활동을 함으로써 요리활동 재료비와 간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5. 협력활동 평가 및 향후 방향

가. 협력활동의 목표 달성 정도 평가

- 텃밭을 가꾸는 활동을 통해 유아들에게는 공동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었으며, 자연체험활동 내용에 따라 연 5회 이상으로 솜마루어린이집 텃밭 및 소심유치원 텃밭을 상호 개방하여 이용함으로써 좀 더 원활하게 텃밭 가꾸기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유아들의 관찰력과 탐구력이 향상되었다.
- 작물을 재배하는 경험을 통해서 식물의 성장과정을 관찰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 식물의 모종과 씨앗을 양 기관이 공동으로 구매하여 비용이 절감되었다.
- 텃밭 가꾸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교사의 텃밭 가꾸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나. 협력활동 계획 및 과정에 대한 평가

1) 협력 활동 계획의 적절성

- 텃밭이 상호 기관과 인접한 장소에 있어 텃밭에 다양한 농작물을 심어볼 수 있었으며 체험 활동과 협력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됨과 동시에 유아들에게 자연 체험활동의 여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적절했다.
- 텃밭 공동 관리와 자연체험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체험활동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

2) 사전 협의와 준비 과정 적절성

- 텃밭 가꾸기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텃밭 가꾸기에 대한 정보를 메일 및 전화 연락을 통해 제공하며 상호 의견 조율을 통하여 준비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 파종 및 모종 심기 활동 후 물주기와 작물의 성장 과정 관찰을 위해서 연간 현장 학습 계획 시 텃밭 가꾸기 활동을 더욱 확장하여 계획하였고, 상호 기관이 텃밭을 활용한 자연체험 활동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해 더욱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3) 협력 실행의 적절성

- 숨마루어린이집에서 마을 안의 넓은 텃밭을 구입하여 소심유치원에도 더 넓은 텃밭을 제공해 줄 수 있었고,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 2009·2010년에 연이어서 파종, 싹 관찰하기, 물주기, 수확하기 등 실행하고 있는 텃밭 가꾸기 활동에서 파종 전의 흙 고르기, 수확 후 사후활동까지 더욱 자연체험활동을 확대하여 실행하였다.
-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함께하면서 모종 및 씨앗 구입, 텃밭 관리 등이 더욱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다. 향후 개선 방안

모종을 구하는데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어 2011년에는 텃밭에 심을 농작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함께 구매하였다. 그러나 모종이나 씨앗을 심은 후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텃밭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텃밭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천으로 인해 텃밭 가꾸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작물 수확 시 잡초 제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텃밭에 작물을 심은 후 비닐을 덮는 등 관리 방안을 세우고 자주 텃밭에 가서 작물을 관찰하고 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님, 동생과 함께 하는 ‘띠앗누리’ 활동

영도초등어린이집과 영일유치원

(부산광역시)

1. 협력 동기와 목적

영일유치원과 영도초등학교어린이집은 2009년부터 다양한 협력활동을 진행해오면서 지리적 위치가 가까워 만남이 용이하였으나, 교육대상 연령(영일유치원은 만 3~5세, 영도초등학교어린이집은 만 2세)이 서로 다르고 발달수준도 차이가 있어 모든 연령에게 적합한 활동을 계획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교사들의 고민이 있었다. 이에 두 기관의 유아들이 서로의 발달에 도움을 주며 협동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의 협력이 요구되어 ‘띠앗누리’활동(형제·자매 짝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0학년도부터 ‘띠앗누리’ 활동을 중심으로 영차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유치원 유아들은 동생들을 도와주고 양보해주는 경험을 통해 형제애를 느끼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생들에게 알려주는 기회를 통해 인지 및 사회적 능력이 발달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영아들은 형님들의 활동 관찰을 통해 사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연령이 많은 유아들의 인지 및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따라서 2010년의 ‘띠앗누리 활동’의 성과와 향후 협력활동 진행 방향 및 개선점에 대한 서로의 평가를 바탕으로 2011년에도 두 기관이 ‘띠앗누리’ 활동을 중심으로 유·보 협력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기로 협의하였다.

2. 협력 준비 과정

가. 협력활동 계획 수립과 협의 과정

2011년 2월 영일유치원에서 영도초등학교어린이집 교사와 함께 2011학년도 유·보 협력 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우선 협력 대상은 발달 수준 차이는 있으나 형제의 경험이 가능한 영일유치원의 만

5세 2학급과 영도초등학교 어린이집의 만 2세 2학급으로 선정하여 짝 활동이 1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전년도 ‘띠앗누리’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장점은 수용하고 단점은 개선하여 올해의 세부적인 ‘띠앗누리’ 활동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띠앗누리’ 활동을 연 6회 이상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계절 및 시기, 행사, 유아의 흥미 및 관심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기관간의 협력 역할 분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띠앗누리’ 중점 활동 담임교사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 메일 등을 통해 해당 월별 ‘띠앗누리’ 활동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활동유형에 따라 장소와 시기를 결정하고 필요한 환경 및 자료를 함께 준비하였다.

또한 두 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띠앗누리 활동 I’과 ‘띠앗누리 활동 II’의 활동 계획과 방법(주제, 활동명 및 교수방법, 활동시간, 장소)을 마련하고 협력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는 등의 지속적인 교사 협의를 통해 활동들을 계획하였다.

띠앗누리 활동 I		띠앗누리 활동 II	
영도초등학교어린이집 고운반	영일유치원 무궁화반	영도초등학교어린이집 예쁜반	영일유치원 백합반
책 읽어 주기	색종이 접기	전래동요 부르기	
어린이집 원아들의 수준에 맞는 책의 선정 및 수업 준비	색종이 접기 활동의 수업 준비	전래 동요 부르기 활동 수업 준비	전통 음률악기 준비

다.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첫째, 유치원은 규모가 커서 어린이집에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풍부한 반면, 유치원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장소는 한계가 있었다. 원 운영시간이 서로 달라 협력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발달 수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 요구되었다. 게다가 많은 원아수로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 활동을 주로 진행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 준비로 인한 업무 과중 및 적절한 장소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2011년 영일 유치원 교사들의 영전으로 인하여 영차프로젝트 담당 교사가 바뀌고, 학기 초 각 기관의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교사들이 사전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영도초등학교어린이집의 원아들의 경우 만 2세의 신입 원아들의 적응 문제와 4·5월에 유행한 수족구로 인한 건강 문제가 있어 협력활동 계획을 세우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영차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면서 각 기관의 환경에 대해 서로가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계획 과정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력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근접한 위치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그램 및 행사·물적 자원·부모 교육 등의 기관 간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

영·유아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장소를 활동 유형에 따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협력 활동 선정 시 유치원의 원아들이 동생들과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을 이야기 나눈 후 선정하였다. 또한 서로의 원 운영시간을 알리고 협의를 통해 협력 시간을 여러 번 시간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줄였으며, 쌍별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자체 연수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3. 협력 실행 과정

영일유치원과 영도초등학교어린이집은 협의를 거쳐 띠앗누리 활동을 “띠앗누리 활동 I”과 “띠앗누리 활동 II”로 나누어 협력 활동을 진행해나가기로 하고, 영일유치원 만 5세 무궁화반과 영도초등학교어린이집 만 2세 고운반, 영일유치원 만 5세 백합반과 영도초등학교어린이집 만 2세 예쁜반의 영·유아가 서로 만나 짝을 정한 후 활동을 진행하였다.

“띠앗누리 활동 I”의 경우 영일유치원의 무궁화반 원아들의 요구에 의해 ‘색종이 접기 활동’과 ‘동생들에게 책읽어주기 활동’이 계획되었다. 이는 어린이집 원아들의 관심이 적고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색종이 접기 활동을 무궁화반 원아들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어린이집 원아들의 색종이 접기에 대한 호기심 유발 및 소근육 발달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협력활동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아직 책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무궁화반 형님들의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통해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올바른 책읽기 방법을 알려주고 글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책 읽어주기 협력활동을 계획하였다.

“띠앗누리 활동 II”의 경우 어린이집 원아들이 접해보지 못한 장구와 소고 등의 ‘전통악기를 이용한 전래동요 함께 부르기 활동’을 계획하여 전통 악기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단순히 단위활동으로의 일회성 활동이 아닌 일과에 포함될 수 있는 놀이 활동으로 연령 간 수준과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협력활동을 계획하였다.

가. 협력활동 내용

1) 모종심기

4월 6일(수) 어린이집 동생들과 인사를 나눈 후, 짝을 지어 동생들이 가지고 온 화분

에 모종을 심고 형님들이 가지고 온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화분에 물을 주었다. 모종심기 활동을 통해 형제애를 느끼고, 식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



2) 색종이 접기

어린이집 동생들에게 색종이 접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영일유치원 무궁화반 유아들의 제안으로 동생들이 쉽게 접을 수 있는 비행기, 틀립, 배 접기 순서도를 유아들이 직접 준비하여 6월 14일(화)에 활동을 진행하였다. 색종이 접기 활동을 통해 유치원 유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어린이집 영아들은 인지적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3)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유치원의 도서관에서 형님이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기 전, 영·유아의 발달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두 기관의 교사가 함께 도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도서 중에서 유치원 유아들이 동생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을 고른 후, 6월 14일(화)에 영일유치원 도서관에서 어린이집 동생 짝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유치원 유아들은 동생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실천해 봄으로써 자신감을 가졌으며, 어린이집 영아들은 동화를 듣는 즐거움과 형제애를 경험하게 되었다.



4) 소고 및 장구 치기

유치원의 형님이 어린이집 동생에게 소고 및 장구 치는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해 사전에 전래동요와 장단을 익힌 후, 6월 14일(화)에 영일유치원의 음률놀이방과 전통놀이방에서 형님과 동생이 함께 전래동요에 맞추어 전통악기를 연주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유치원 유아들은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게 되었으며, 어린이집 영아들은 평소에 접하지 못한 전통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5) 자유선택활동 함께 하기

6월 26일(수) 어린이집 고운반 교실에서 동생 짝과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한 후, 흥미영역에서 동생과 함께 자유선택활동을 해 보았다. 이 활동을 통해 유치원 유아들은 동생들이 좋아하는 놀이영역과 놀잇감을 알고 동생과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느꼈으며, 어린이집 영아들은 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놀이방법을 익히게 되었다.



6) 물놀이

유치원의 형님과 어린이집 동생이 함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수 보낼 수 있도록 7월 21일(목) 영일유치원의 아띠하늘공원에서 물장구치기, 물총놀이 등 신나는 물놀이를 해 보았다. 물놀이 전, 물놀이 약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물놀이 후, 유아들과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7) 공동체험학습

교직원 협의를 통해 공동체험 대상 및 일시, 장소를 결정하고, 띠앗누리 활동 반영·유아들이 9월 6일(화) ‘깜부의 미스터리 아일랜드’에서 공동체험활동을 하였다. 차량을 어린이집에서 대여해 주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영·유아들은 기관 외의 새로운 환경에서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8) 송편빚기

9월 9일(금) 영일유치원 ‘민속의 날’을 맞이하여 형님과 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선정하기 위해 교직원 협의를 실시하였다. 교육과정 운영시간 및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송편빚기’ 활동을 띠앗누리활동으로 선정하여 영일유치원 무궁화반 교실에서 형님과 동생이 함께 송편을 빚어보았다.



나. 협력활동 실행 절차

- 1) 2월에 영일유치원과 영도초등학교어린이집 교직원이 함께 2010학년도 영차 프로젝트 ‘띠앗누리’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 2) 3월에 전년도 평가를 참고하여 두 기관이 2011학년도 영차프로젝트 연간 협력 추진계획을 함께 수립하였다.
- 3) 매월 연간협력계획에 따른 ‘띠앗누리’ 활동 전, 교직원 협의를 통해 계절, 시기, 행사, 유아의 흥미 및 상황을 고려하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 4) ‘띠앗누리’ 활동 후 유아 및 교사가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활동에 대한 협력 일지를 작성하였다.

4. 협력 성과

원 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생들을 도와주고 양보해주는 경험을 통해 형제애를 느낌 ·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생들에게 알려주는 기회를 통해 인지 및 사회적 능력이 발달됨 · 형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숙함을 가지고 여러 활동을 경험해봄으로써 사전 지식과 경험을 가짐 · 연령이 많은 유아들의 인지 및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익힘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통신문을 통해 ‘띠앗누리’ 활동의 협력 과정 및 결과를 안내 받음으로써 자녀의 유치원 생활 일부를 알고, 동생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태도를 발견함 ·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임 ·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해 관심을 가짐
교사 및 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원아들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여 연계성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함 · 유치원과 함께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 단일연령학급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이가 확장되어 원아들의 모습의 변화를 관찰함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띠앗누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함

5. 협력활동 평가 및 향후 방향

가. 협력활동의 목표 달성 정도 평가

영차프로젝트가 3년차에 들어가면서 영·유아 모두에게 적합한 ‘띠앗누리’ 활동을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영차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띠앗누리’ 활동에 참여하는 영·유아를 위해 두 기관의 교사 및 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이 단결할 수 있었다.

유치원 유아들의 요구에 의한 활동선정과 적극적인 참여로 친밀한 관계형성을 이루고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보다 많은 사회관계증진 활동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원아들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 목표 달성과 함께 '시설환경'영역에서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상호간의 이용 가능한 공간, 시설, 자료, 등의 통합적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 기관의 협력을 극대화시켰다고 생각된다.

나. 협력활동 계획 및 과정에 대한 평가

1) 협력활동 계획의 적절성

두 기관이 인접해 있어 만남이 용이하였으며, ‘띠앗누리’ 활동을 통해 영·유아들은 형제애를 느끼고 인지 및 사회적 능력이 발달하였다. 또한 학부모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자연스럽게 홍보하여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두 기관의 비용절감 효과

및 단합의 계기가 되어 질 높은 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띠앗누리’ 활동은 모든 구성원이 영·유아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단결함과 동시에 협력 기관간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계획하여 실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의 격차를 제로화(0)함을 추구하는 ‘영차프로젝트’의 취지에 적절하였다.

2) 사전 협의와 준비과정의 적절성

두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활동 진행을 위하여 영차프로젝트 담당자간 협의 및 각 띠앗누리 활동별 교사들 간의 개별 협의 및 토의를 통하여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졌다. 기관이 인접해 있으나 각 기관의 하원시간이 달라서 교직원 협의회를 어린이집의 영아 낮잠 및 하원 시간 이후에 진행하였으며, 만남이 어렵거나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들은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하였다.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유치원 교사의 주도하에 어린이집 교사의 도움을 받았으며,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어린이집 교사의 주도하에 유치원 교사의 도움을 받는 등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띠앗누리’ 활동을 준비하고 진행 및 평가를 하였다.

3) 협력 실행의 적절성

시설환경이 잘 되어있는 영일유치원의 공간(도서관, 전통놀이실, 음률놀이실)을 활용하였으며 업무분담을 위해 각 기관의 교사들의 수업 분담을 통해 협력활동을 준비해나갔다. ‘띠앗누리’ 활동 전, 유치원의 유아에게 ‘동생과 하고 싶은 놀이’ 및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이를 본 활동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형님들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동생들도 형님들을 잘 따르고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또한 교직원 협의를 통해 영·유아의 관심 및 발달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다. 향후 개선 방안

협력 과정에서 교사들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기 위해, 어린이집 원아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활동에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여 사용하다보니 어린이집에서의 공간 활용 보다는 영일유치원의 공간 활용이 이루어져야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조금 낮설고 긴장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는지, 영일유치원 원아들에게는 평상시와 동일한 환경에서의 활동 진행으로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띠앗누리’ 활동 장소에 따라 각 기관의 교사 역할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만약 각 기관의 교사 모두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간다면 ‘띠앗누리’ 활동의 협력 성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띠앗누리’ 활동은 각 원의 원아들이 발달수준 차이가 있어서 형과 동생이 짝을 지을 수 있으며, 인접하여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띠앗누리’ 짝을 정할 때 원아들이 원하는 형과 동생이 짝이 될 기회를 제공하면 영·유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멘토링 활동 “우리는 형제예요”

성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성지초등학교어린이집
(부산광역시)

1. 협력 동기와 목적

성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성지초등학교어린이집은 지리적 위치가 가까워 각 기관의 유아들이 바깥놀이터 및 운동장에서 만나면 서로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최근 한자녀 가정의 유아들이 증가함에 따라 형제의 경험을 갖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형제활동을 함으로써 유치원 유아의 경우 어린 연령의 동생과 함께 놀이를 하는 경험을 통해 양보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어린이집 유아의 경우 형, 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신이 소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성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성지초등학교어린이집은 2010년 9월~2011년 2월 한형제 활동을 해왔으며, 긍정적인 결과로 인해 2011년에도 계속 한형제 활동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2. 협력 준비 과정

가. 협력활동 계획 수립과 협의 과정

2011년 4월, 유치원의 만5세반(슬기반)과 어린이집의 만3세반(나래반) 유아들을 멘토링 활동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반의 유아수를 고려하여 유치원 유아 2명과 어린이집 유아 1명의 비율로 형제 그룹을 정하고, “우리는 형제예요” 활동의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세웠다.

나. 기관간의 협력 역할 분담

성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지초등학교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1,3주 수업자료 준비	<input type="checkbox"/> 2,4주 수업자료 준비
<input type="checkbox"/> 유치원과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학교 내 메시지를 통해 해당의 활동에 대해 항시 의논 <input type="checkbox"/> 활동자료 구입은 각 기관의 시설장, 원감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설정, 구입함 <input type="checkbox"/> 부수적인 활동자료는 각 담당 학급 교사가 준비함	

다.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두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내용과 운영 시간이 달라 함께 활동하는 시간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초기에는 유치원 유아들이 어린이집 유아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 유치원 교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했었고, 형제애를 증대시킬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했다.

이에 유치원은 점심식사 및 실외놀이 후, 어린이집은 점심식사 후(13:00~13:30)로 활동시간을 협의하여 조정하였으며, 수요일날 진행하던 활동을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이 없는 목요일로 조정하였다. 유아들이 형제 활동에 대해 알고 서로의 짝에 대해 익숙해진 학기 중반부터는 각 기관의 교사가 교대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3. 협력 실행 과정

가. 협력활동 대상 및 계획

유치원의 만5세, 어린이집의 만3세 반 유아들을 멘토링 활동 “우리는 형제예요”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반의 담임교사 협의하여 반별 유아수와 개별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유아 2명과 어린이집 유아 1명의 비율로 형제 그룹을 정하고, 활동의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세웠다. 또한 매월 초 협의회를 통해 활동의 주제에 대해 협의하고 교사간의 세부적인 주제선정 협의를 진행하였다.

나. 협력활동 내용선정

활동 내용과 주제는 참여 학급의 교사가 서로의 학급주제들을 공유하고 협의하여 공통된 주제속의 내용을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양간의 주제가 서로 상이할 시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주제 또는 유아들의 관심사에 따른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협력활동의 세부내용(대표활동)

구분	내용
4월11일 형제 맺기 기념식	10:30부터 11:00까지 한형제 맺기 기념식을 유치원 강당에서 가졌다. 각 기관의 모든 유아들이 함께 강당에 모였으며, 형제 맺기의 형제그룹이 된 유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형제 이름표 전달, 함께 손을 잡고 기념 사진촬영을 하였다.
4월 27일 자전거를 타요	유치원 강당에서 자전거 타기 활동을 하였다. 형제활동 그룹의 유치원 형, 누나들이 어린이집 동생들 자전거 타기를 도와주었다. 혼자서 자전거 타기가 힘든 동생들을 위해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려주고 손을 잡아주며 자전거를 밀어주며 활동을 함께 하였다.
5월 12일 모래놀이를 해요	모래놀이터에서 모래놀이 활동을 하였다. 형제활동으로 모래놀이를 함께하며 형제간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계획 실행하였다. 활동 전에 동생들, 형, 언니와 모래 놀이 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유아들 간 인사를 나눈 후 자유롭게 모래놀이 활동을 하였다.
5월 19일 나뭇잎 나비 만들기	초등학교운동장 쉼터에서 나뭇잎으로 나비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떨어진 나뭇잎을 수집하여 형제그룹 유아들이 살펴보고 나비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활동에 필요한 나뭇잎이 많아 유아들은 형제 그룹별로 모여 나비를 함께 만들었다.
5월 26일 건널목 건너기	초등학교 내 주차장 입구에서 활동을 진행하였다. 건널목 건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뒤, 형제활동 그룹끼리 손을 잡고, 오른쪽, 왼쪽을 살핀 뒤 손을 들고, 건널목 건너보기를 하였다. 형, 누나들이 동생들을 스스로 챙기며 이쪽 저쪽 살피기, 손을 높이 들기 등을 도우며 동생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다.
6월 2일 나무에서 소리 가 들려요	산책로 쉼터에서 청진기를 이용해서 나무의 소리를 들어보기 활동을 하였다. 청진기는 사전에 담임교사간 협의를 통해 유치원에서 준비하기로 하였다. 형제그룹 유아끼리 모여 나무를 안아보고, 청진기를 이용해 나무의 소리 들어보기 활동을 하였다.
6월 9일 돌탑을 쌓고 소원을 빌어요	유치원 후문 입구에서 돌탑을 쌓고 소원 빌어보기 활동을 하였다. 학교운동장과, 산책로를 걸으며 돌맹이 수집을 하였다. 수집이 다 된 형제그룹 유아들은 자리를 잡고 돌탑 쌓기 활동을 하였다. 형, 누나들의 도움을 받으며 탑을 쌓은 뒤, 유아들의 소원 빌기 활동을 하였다.
6월 16일 악기연주를 해요	운동장과 산책로를 형제그룹 유아들끼리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며 자연물 수집을 하였다. 형, 누나들이 나뭇가지, 돌맹이, 나뭇잎 등 무엇을 주워야하는지 동생들에게 알려주며, 위험한 것은 만지지 않도록 도와가며 자연물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연물을 가지고 산책로 쉼터에 앉아 노래에 맞추어 자연물을 이용하여 악기연주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6월 23일 돌맹이로 글자를 만들어요	돌맹이로 글자 만들기 활동을 위해 형제그룹 유아들끼리 운동장과 산책로를 돌며 돌맹이 수집을 하였다. 동생들 이름을 운동장 모래위에 형, 누나들의 도움을 받아 적어서 돌맹이로 글자를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글을 아는 형, 누나들은 동생들 이름에 더 관심을 가졌고, 동생들은 자기의 이름을 적어 돌맹이로 글을 만들어봄으로써 즐거워하였다.
7월 7일 공굴리기 게임을 해요	유치원 강당에서 형제그룹 유아들끼리 편을 나누어 함께 공굴리기 게임을 하였다. 동생들의 키가 작아 공에 부딪혀 넘어지더라도 하면, 형, 누나들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며 도와가며 즐겁게 게임을 하였다.
9월 8일 자전거 타는 동생을 도와줘요	유치원 강당에서 형제활동 그룹의 유치원 형, 누나들이 어린이집 동생들 자전거 타기를 도와주었다. 혼자서 자전거 타기가 힘든 동생들을 위해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려주고 손을 잡아주며 자전거를 밀어주며 활동을 함께 하였다. 동생들이 다치지 않게 살짝 밀어주겠다며 이야기를 하며, 유치원 형, 누나들이 더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였다.
9월 15일 징검 다리를 건너요	유치원 강당에서 대근육 활동자료를 이용하여 징검다리 건너기 활동을 하였다. 동생들의 손을 잡아주며 활동을 하였다. 동생들은 형, 누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지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을 참여했다. 함께 응원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4. 협력 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을 서로를 통해 배우며 함께 활동하는 동생, 형·누나들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또래 친구들에게도 배려와 존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나’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 대해 생각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었다.

형제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형·누나 관계에서의 연속선상으로 또래 관계에서 배려와 존중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의 하나로 보인다.

■ 유아

현대사회의 한자녀 가정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유아들이 외동으로 자라며 형제애를 느낄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었다. 형제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서로에 대해 형제애를 느끼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심과 소속감을 느끼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활동을 진행할수록 서로의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럴수록 스스로 각자의 동생을 찾고 스스로 형, 언니들을 찾는 일이 많아져 친밀감의 정도가 높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는 유아들이 형제활동을 하는 목요일을 기다리게 되고 수시로 형, 언니들의 안부를 교사에게 묻는 일도 일어남을 볼 수 있었다.

■ 부모

양 기관의 부모님들 또한 목요일 형제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짝 형·누나 또는 짝 동생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형제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이 가정에서 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해주신다.

■ 교사

양기관의 교사는 양기관의 유아들의 특성을 함께 파악하고 공유하며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 발전을 위해 함께 협의하고 고심을 하며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다.

5. 협력활동 평가 및 향후 방향

가. 협력활동의 목표 달성 정도 평가

형제활동은 유아의 소속감과 존중, 배려, 사회성 향상 이라는 목표 아래 실시되고

있다. 주 1회 꾸준한 활동을 통해 영아들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다양한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으므로 목표를 달성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협력활동 계획 및 과정에 대한 평가

1) 협력활동 계획의 적절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들이 상이하지 않고 양기관의 유아들이 보육과 교육의 높은 질적 서비스를 받아야 함을 염두해 두고 실시하였다. 보육·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내용의 전체적인 통합이 아직은 불가능했으나 같은 목표와 취지를 두고 함께 활동을 계획함으로써 부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 성지초등학교 어린이집의 영유아 구성 특성상 만 3세 유아반이 가장 큰 연령이다 보형·누나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다. 유치원은 만 5세까지의 유아 학급구성으로 인해 양기관 서로의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활동이 계획, 실시되었다. 양기관의 협력을 통해 서로 Win-Win하고 있는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사전 협의와 준비과정의 적절성

월 1회 협의회, 초등학교 시설내 전화연락망,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하고 계획, 실행, 평가에 있어 긴밀히 협의, 협력이 되고 있다. 서로의 역할 분담도 항시 조정하고 있으며 교사간의 친밀감 형성으로 인해 의견조율 또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협력 실행의 적절성

활동 시행 초기에는 유치원 유아들이 어린이집 유아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 유치원 교사가 주도적인 역할로 해야 했으나 현재는 1,3주는 유치원 교사의 주도아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2,4주는 어린이집 교사의 주도 아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담주가 아닐 시에는 활동의 보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향후 개선 방안

초등학교 교내 시설 내에서만 활동하는 방식을 벗어나 주위 지역사회 시설물 또는 기관들을 활용한 더욱 넓은 범위로 확산하여 진행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

타 기관이 형제활동을 계획하게 된다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항은 양기관 교사간의 협조와 타협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간의 상호협력이 기초가 되어야

안정적인 활동 계획이 수립되고 안정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신학기초 연안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양기관 교사가 함께 모여 공통된 주제를 선정하여 연안을 작성한다면 형제 활동의 활동 내용 선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 협력

통합 교육·보육과정

- 생활주제 『우리 동네』, 『물』 -

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무궁화어린이집·한국몬테소리어린이집
(강원도 홍천군)

1. 협력 동기 및 목적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국민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의 장을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유아는 어떤 기관에 다니던 공평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소집단 협력 기관에서는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을 위해 교육·보육과정의 협력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2. 협력 사전 준비 과정

가. 사전 협의 과정

생활 주제	협 의 일 시	협의내용 및 역할분담	
우리 동네	1차 (2011.5.23)	협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동네 통합 교육·보육과정 사전협의회 일정 정하기 •우리 동네와 관련된 교육 보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수집
	2차 (2011.5.27)	역할 분담	남 산: 각 기관에 전화 연락을 통해 협의회 일정 및 준비사항 안내 무궁화: 물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수집 한 국: 물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수집
		협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주제 우리 동네를 함께 운영할 주간 선정 •우리 동네에서 배울 개념 선정 •조사해 온 활동을 중심으로 통합 활동 주제망 작성 •선정된 개념을 배울 수 있는 활동 선정 •선정된 활동을 중심으로 주간계획안과 가정통신문 작성 •현장학습 갈 장소와 날짜 정하기 •남산의 차량 협조에 대한 날짜와 시간 정하기

생활 주제	협 의 일 시	협의내용 및 역할분담	
		역할 분담	남 산: 협의회 진행 한 국: 협의회 내용 기록 무궁화: 협의회 사진 촬영. 세 기관에서 준비한 자료 취합하여 회의자료 준비
물	1차 (2011.6.27)	협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통합 교육·보육과정 사전협의회 일정 정하기 • 물과 관련된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수집
		역할 분담	무궁화: 각 기관에 전화 연락을 통해 협의회 일정 및 준비사항 안내 남 산: 물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 한 국: 물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
	2차 (2011.6.29)	협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주제 물을 함께 운영할 주간 선정 • 물에서 배울 개념 선정 • 조사해 온 활동을 중심으로 통합 활동 주제망 작성 • 선정된 개념을 배울 수 있는 활동 선정 • 선정된 활동을 중심으로 주간계획안과 가정통신문 작성
		역할 분담	한 국: 협의회 진행 무궁화: 협의회 내용 기록 남 산: 협의회 사진 촬영. 세 기관에서 준비한 자료 취합하여 회의자료 준비

나. 사전 협의 평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보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이 없이 하나의 계획안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데에는 많은 의견 조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각 기관의 교육과정 보육과정에 대한 관련 서적을 통하여 공부를 하였고 사전 협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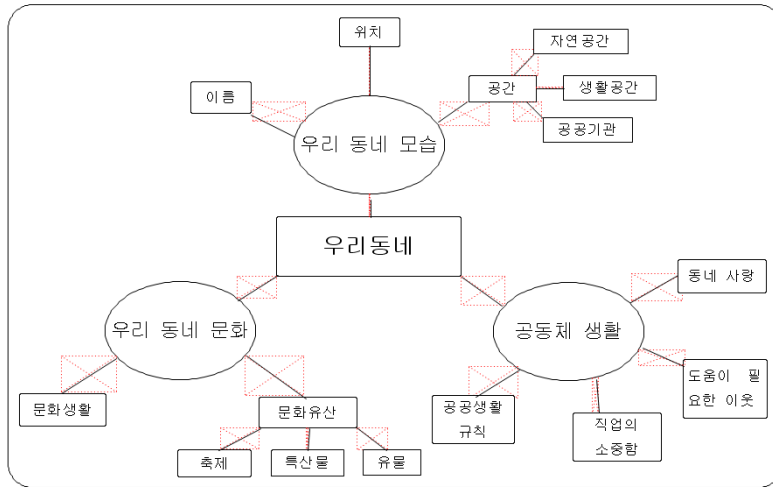
또한 각 기관의 연간계획, 행사,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날짜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각 기관이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생활주제, 행사 날짜, 차량 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 각 기관의 교재 교구가 많이 달라 기관 간에 교재 교구를 공유하고자 하였으나 각 기관 간의 거리가 멀다보니 교사에게는 또 하나의 업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협의 후 우선 모두 갖고 있는 교재 교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계획안을 작성하되 꼭 필요한 교재 교구만을 서로 빌려주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통하여 협동하는 기간 중 매일 번거롭게 각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3. 협력 실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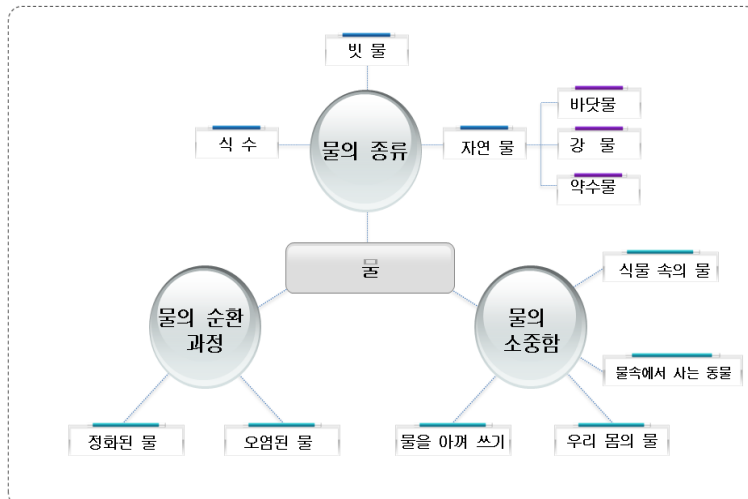
<1차> 주제: 「우리 동네」

- 일시: 2011년 6월 13일(월) - 17일(금)
- 장소: 남산초병설유치원, 무궁화어린이집, 한국몬테소리어린이집
- 대상: 세 기관의 만5세 유아 (총 90명)
 - 생활 주제 「우리 동네」의 주요 개념을 추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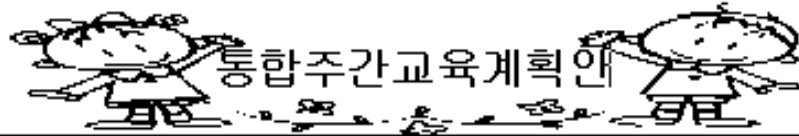


<2차> 주제: 「물」

- 일시: 2011년 7월 11일(월) - 15일(금)
- 장소: 남산초등병설유치원, 무궁화어린이집, 한국몬테소리어린이집
- 대상: 세 기관의 만5세 유아 (총 90명)
 - 생활 주제 「물」의 주요 개념을 추출한다.



- 통합 주간계획안을 작성한다.



생활주제	우리동네	소주제	우리 동네의 모습과 생활
교육목표	1.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다. 2. 우리는 사는 여러 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다. 3. heel바르게 행동하고, 길서른 지켜며,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급등영역		요일					
		18일(월)	14일(화)	15일(수)	16일(목)	17일(금)	18일(토)
아 결 금 등		책 읽기	책 읽기	책 읽기	책 읽기	책 읽기	0
자유선택영역	쌓기놀이 영역	우리 동네 구상하기					
	역할놀이 영역	도서관놀이, 보건소와 약국놀이					
	인 어 영역	가게간판 글자를 찾아보세요, 우리 동네에 숨어있는 글자는?					
	수·조작 영역	우리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느질, 합기, 우유 배달하기					
	과학 영역	우리 동네 지도 관찰하기					
	조형 영역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꾸미오					
	컴퓨터 영역 (아이로네)	우리 동네					
미 공 영 역	이야기 나누기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사는 거리	우리 동네 지도	동물들의 집이 우리 동네엔?	보건소는 어떤 곳일까	자유선택영역
	등시·등화·등극	도서관에 간 사자	고마운 분은	우리 동네가 생겨게 된 이야기	구멍가게 (등시)		
	음악 활동	우리 동네					
	신체·게임			우유 배달하기	뽀뽀기	어린이 건강캠프	창의영역
	실외·환경학습	도서관 돌아 보기	생명건강 과학관 (유보령역-영광프로젝트)			보건소 견학	
	조형 활동	우리 동네 주제말 짜기		우리 동네 지도 꾸미기	우리 동네 책 만들기	보건소를 다녀온 후	
특별 교육	인턴십 안전교육		책 읽어주는 어머니	복소양치	과학창의활동		
					열가소성플라스틱의 변신		
이 주의 연속	기본생활			생활중심 안전 교육			
	한 음식 많이 먹지 않기			내 몸 예방-따라가면 안돼요 실용유괴 예방교육-			
가 코 네 신 무	이번주는 유보령역의 활동 중 「프로그램 협력」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생활주제, 소주제, 교육목표를 가지고 통합 교육 보육 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권장사항으로 표시된 활동은 서기관이 모두 동일한 활동이고, 나머지 활동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알맞게 선택하여 구성한 활동들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뒷면의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7일(금)은 어린이 건강캠프로 보건소로 환경학습을 갑니다 ♥ 18일(토)은 초록별디 활동이 있으니 단복을 입고 오도록 합니다.						

- 주간계획안에 의거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가) 조형 및 쌓기 활동



나) 공동의 현장 학습 다녀오기



다) 차량 협력 받기



- 통합 주간계획안을 작성한다.

공통주간교육계획안 (만5세)

연 단	남산초등학교유치원 (만5세)	시 기	2011년 7월 11일 ~ 7월 16일 (7월 8주)			
심화주제	모	주 제	모양 우리 심화			
목 표	1. 모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자유롭게 만든다. 2. 심화 속에서 모이 주는 고마움을 먹고 소포하게 여긴다. 3. 모를 아껴 쓰고 케이크가 사랑하는 스톤을 가진다.					
요일	11월(월)	12월(화)	1월(수)	1월(목)	1월(금)	1월(토)
자유선택활동	쌓기놀이 영역	보통으로 수염장 꾸미기, 달 만들기, 걸림다리 구성하기				
	조각놀이 영역	잡담공 쓰기, 수염장 놀이				
	언어 영역	마약에 모이 없다면?, 소포로 모에게 편지쓰기				
	수-조작 영역	비 오는 날 사랑하는 모건, 스푸이드로 모 만들기, 벤다이어그림(바다,공)				
	과학 영역	모에 뜨는 것과 가라 뜨는 것, 모이 케이크하는 과정보기, 모 등보기, 얼음 녹이기				
	조리 영역	모고기 만들기, 모 쪄 피우기				
	컴퓨터 영역 (아이로봇)	모에 관한 활동				
대·소집단	예상 나누기	모에 대한 그림 나누기	모의 다양한 이름	모에 뜨는 것과 가라 뜨는 것	모를 더럽게 만드는 것들	모를 안 아껴서 사랑해야 할까요?
	듣기-듣기-듣기	목욕은 즐거워	아이로봇들의 어릴	무지개 모고기	더러운 모 피모이야	바모가에서 찾아주세요
	연말		어른 내가		바릇들 케뜨러	
	선화-계명	인터넷 사랑 계획표		비누날로 놀이		모 물건 만들기, 엄지끼
	조리 활동	모에 대한 쪄짐	새인테 분무기	풀이린 모레날야	빙날로 모자이크	모고기 전기
	금장국수					
바깥놀이 활동	모이네 띄우기	뽕판다네오기-왕자캐기-	산책	목욕선 만들기	산책	
특별 교재	인터넷 안전교재	책 읽어주는 어머니 책교재	보소달치	과학찰의교재		
기본생활습관	침례습관 : 손을 자주 씻어요					
안전 교재	모놀이 안전 : 모놀이 시 지킬 약속					
가정통신문	아이반 주는 남산초등학교유치원, 무로물어린이집, 큰국본테소리어린이집이 협력하여 교재본 제작하여 두 번자로 전달하는 주입니다. 왕실니공 유치권을 소득하여 보내주세요 7월 21일(목)에본날국식을 하며 날국공 올림받은 22일부터 전달됩니다 (왕니공,본도 배부)					

- 주간계획안에 의거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가) 물과 관련된 주제망 작성하기



나) 물과 관련된 조형 활동



다) 물과 관련된 쌓기 및 과학 활동



라) 물과 관련된 신체 활동 및 그림 동화 듣기



4. 협력 성과

- 가. 영유아들은 「우리 동네」와 「물」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이용 기관에 상관없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 나.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은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 다. 교사들은 다른 기관의 동료 교사들과 교육·보육과정 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교수 학습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 라. 기관에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에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관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5. 협력 활동 평가 및 향후 방향

가. 목표 달성 평가

생활 주제 「우리 동네」와 「물」과 관련하여 통합 교육·보육 과정 운영을 통해 주제에 대한 다양한 탐구를 통해 주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의 질 격차를 제로화(0)하는 유보협력 영차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나아가 아이들의 공평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다.

나. 협력 활동의 계획과 과정에 대한 평가

두 기관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생활 주제 「우리 동네」와 「물」에 대한 통합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 서비스 질 격차 제로화(0)에 적합한 협력 활동이었다. 충분한 사전 협력 활동을 통해 통합계획안을 작성하였으므로 활동을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2010년부터의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교사들 간의 친밀감이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졌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 단계에서도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러 주에 걸쳐 심층적으로 활동을 진행 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시기를 고려하여 통합과정을 계획하여 운영하면 더 오랜 기간 심층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향후 개선 방안

연간 계획 수립 시 조금 더 많은 통합 주제를 선정하여 좀 더 많은 통합 교육·보육 활동을 운영한다면 교육의 질적 평등을 더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세 기관의 가정과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한다면 학부모들에게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형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종일반 활성화 연계 활동 - 인형극과 함께하는 야외활동을 중심으로 -

계남유치원과 부곡어린이집
(경기도 부천시)

1. 협력 동기와 목적

환경과 교육형태가 다른 두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과제를 이끌어내기란 그리 쉽지가 않았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두 협력기관 사이의 공통점을 찾던 중 종일반에 대한 프로그램 제안이 있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가정 부업, 학업 등에 종사하는 가정의 자녀로 두 기관 모두 종일반 유아들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오후에는 별도로 종일반을 운영하며 적절한 환경과 보육, 교육을 함께 제공해야 하므로 유보협력의 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2010년 유보활동의 주안점을 종일반에 맞추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종일반 하루일과는 정규수업을 마치고 연령이 합쳐진 모듬 형태로 모여지게 된다. 휴식과 함께 오후간식을 먹고 유아들의 수준을 고려한 자율적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로 활동이 원내 교실과 놀이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유아들의 활력도를 도모하는 색다른 경험에 대한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므로 이번 「영차 프로그램」에 “종일반 활성화 연계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2. 협력 사전 준비 과정

2010년 4월 15일 부천지역 운영협의회를 마치고 두 협력기관이 모여 영차 협력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두 기관의 실태현황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종일반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두 기관의 종일반 인원은 부곡어린이집이 30여명, 계남유치원이 20여명으로 함께 활동함에 큰 무리가 없는 인원이었다.

두 기관의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종일반 유아를 위한 협력활동으로 1학기에 2회, 2학기에 2회, 총 4회의 협력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 교사평가회, 교사

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 연수 등 부수적인 활동도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다.

협의결과 5월에 부곡어린이집에서 ‘인형극 및 야외활동’을, 7월에는 계남유치원에서 ‘물을 이용한 과학놀이’를 주관하기로 하였다. 또한 8월에는 2학기 준비를 위한 교사 연수와 교수·학습자료 제작 워크숍을 계획하였다.

3. 협력 실행 과정

2010년 5월 24일과 27일에 있을 영차 협력활동 준비를 위하여 부곡어린이집에서 모임을 갖고, 참석 인원 보고와 시간조절, 활동 브리핑을 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인형제작은 기존에 비치된 인형을 수정·보완하기로 하여 두 기관의 교사들이 모여 함께 진행하였고, 야외활동은 부곡어린이집에서 약 5분 거리에 숲 공원이 인접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야외활동은 포스트활동으로 10명이 한 팀이 되어 6개의 활동영역을 준비하기로 하였으며, 계남유치원의 경우 부곡어린이집에 비해 숲 공원과 거리가 조금은 멀어서 이동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활동 소품 및 재료는 종일반 활동의 장소인 부곡어린이집이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원활한 활동 진행을 위하여 1차 활동 준비물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야외 활동 시 지도 역할 분담을 배정하였다.

계남유치원과 부곡어린이집의 종일반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일주일 전부터 학부모님들께는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아동들에게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통하여 협력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홍보를 하였다. 또한, 각 기관의 재원 아동들에게는 서로를 초대할 손님에게 어떤 예절을 보여야할지, 활동 진행을 어떻게 할지, 협력기관 친구들과 어떻게 활동할지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부곡어린이집은 계남유치원 친구들에게 멋진 주인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의논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야말로 유아들의 눈빛에는 설렘으로 가득하였고, 일상에서 벗어나 타 기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친구만나는 것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활동을 기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는 계남유치원이 정규프로그램을 끝내고 바로 종일반을 모아 부곡어린이집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계남유치원 차량은 귀가지도로 인해 차량운행 중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6, 7세 원아들은 담당교사의 지도아래 도보로 약 20분(유아걸음)정도 부곡어린이집으로 걸어가기로 하였고, 5세 원아의 경우는 승용차로 2번 이동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진행하는 가운데 다행히 부곡어린이집에서의 여유차량으로 인해 계남유치원의 종일반 유아 모두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

부곡어린이집 현관에 모두 모인 부곡어린이집과 계남유치원의 종일반 아동들은 단체 사진촬영을 하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준비된 오후 간식을 먹었다. 그 후 2층 강당에 두 기관의 종일반 아이들이 함께 모여 만남의 인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서로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진 뒤 인형극을 관람하였다. 강당은 예배실로 음향 시스템과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인형극의 효과를 더욱 높여 주어 아이들이 인형극에 모두 집중을 잘하여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다.

두 기관의 교사들은 역할 분담을 했던 대로 각자의 준비물을 챙겨 미리 부곡어린이 집으로부터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숲 공원’으로 이동하여 유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인형극 관람 후 두 기관의 유아들은 교사의 지도아래 짝을 지어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부곡어린이집과 계남유치원의 종일반 원아들을 모듬으로 합쳐 10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포스트 활동을 시작하였다. 두 기관의 교사는 총 9명이 인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교사인원이 부족하여 한 교사가 양쪽 포스트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페이스 페인팅, 솔방울을 이용한 잠자리 목걸이 만들기, 잔디위에서 비눗방울 날리기, 집 앞 뜰에서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잔디에 누워 동화 듣기,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색다른 체험을 해 본 하루였다.

종일반을 위한 영차 1차 협력 활동		
활동명	활동내용	담당
인형극	빨간모자-인형극 틀/ 핸드퍼펫/ 인형극 배경판/ 녹음기/ 조명	부곡어린이집 교사
야외 활동	1) 페이스페인팅-페이스페인팅/ 붓/ 물/ 거울/ 물티슈 2) 자연물 목걸이- 솔방울조각/ 목공본드/ 줄/ 눈알/ 장식소품 3) 비눗방울 놀이- 비눗물/ 빨대/ 용기/ 물휴지 4) 신체표현 - 녹음기/ 음악/ 리본줄 5) 동화듣기- 퍼펫동화/ 돛자리 6) 바람개비- 색종이/ 막대/ 핀/ 가위	- 부곡어린이집 - 계남유치원 - 부곡어린이집 - 계남유치원 - 부곡어린이집 - 계남유치원



‘중일반 활성화를 위한 연계활동’인 야외활동을 모두 마무리하며 아쉬운 시간을 뒤로하고 각 기관의 원장선생님의 인사와 원아들의 인사로 유보협력의 하루를 마감하게 되었다.

4. 협력 성과

■ 원아

영차 협력활동을 통해 두 기관의 중일반 원아들이 또래와의 일반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음에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서로 돕는 의미’에 대해 알아 본 인형극 활동과 어울려 놀이할 때 더 큰 즐거움이 있음을 알게 된 야외활동을 통해서 유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는데 좋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다른 기관의 환경을 느껴보는 새로운 경험 속에서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도 되었다.

제한된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에서 벗어나 지역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유아들에게 심미감을 키워주고, 자연 생태를 직접 느끼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누군가를 초대해보거나 자신이 손님이 되어 보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해와 존중 그리고 서로가 지켜야할 예절이 있음을 알고 모둠 활동을 통한 협력을 이해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되었다.

■ 학부모

오랜 시간동안 계남유치원과 부곡어린이집에서의 연계 활동을 지켜보는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연계활동 후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경험했던 활동과 즐거웠던 기억들을 반복하여 이야기했다는 측면이다. 이렇게 유아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가정에 전달하는 동안 무엇보다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표정과 신나하며 다음을 기다리는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직접 느끼며 이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욱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 교사

활동을 진행하기위해 각 기관의 실태를 브리핑하는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연령의 특성과 유아를 지도하는 교수 방법과 환경 구성에 대한 의문점과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게 되면서 교사 자신이 소속된 학급과 기관에서 더욱 열심히

교구, 교재 제작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각 기관에 비치된 자료공개를 통해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부족했던 매체 등을 서로 빌려 사용하거나, 이를 참고로 교사들이 교구제작을 하여 수업에 적절히 활용하는 등의 재정적, 교육적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5. 협력활동 평가 및 향후 방향

■ 협력활동과정에 대한 평가

협력활동 초기에는 무척이나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영차 프로젝트」 활동이 유아들의 기쁨으로 마무리되자, 그 동안에 프로그램 계획 및 준비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었던 교사들에게 큰 보람으로 가득 채워졌다.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많은 부분 가운데서도 높이 평가하는 것은 한 기관의 프로그램을 두 기관의 원아들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두 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서 한계점은 드러나게 마련이었다. 그 중에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 중의 하나는 「영차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두 기관의 교사들이 서로 상호 이해와 협동하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관에 일이 조금 더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다보면 교육 및 재정, 시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두 협력기관 중 시설적인 면에서 좀 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조건이 좋은 곳, 이동이 편리한 곳 등을 고려할 때 편중되는 경향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이를 상대적으로 보충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간구하기 위해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교사 연수 및 회의를 통해 의견조율 및 교사 간 신뢰 구축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앞으로 진행될 또 다른 협력활동에도 두렵고 번거롭다라는 마음보다 교사로서의 보람과 프로그램 성공의 확신을 예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 향후 개선 방향

앞으로 보다 발전된 「유보 프로젝트」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측면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두 협력기관의 재원 아동들의 관계증진 부분이다. 두 기관의 재원 아동 중 비교적 소극적이거나 낮을 많이 가리는 기질의 아이들의 경우는 낮선 환경과 낮선 또래에 대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듯 하여 적극적으로 야외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다행히 담당교사의 적극적인 유도 활동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놀이에 동화되는 모

습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이 프로그램의 규모가 조금 더 커진다고 하면 담당교사의 활동범위에도 한계가 있게 된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전활동으로 미리 1:1 의형제 맺기 프로젝트, 또는 초청장을 만들어 서로의 기관 및 또래학급을 미리 방문하여 탐색해 보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관계형성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추후 이루어질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사나 기관장의 입장에서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두 번째는 「유보 프로젝트」 협력활동의 시간 확충 및 연령 확장 측면이다. 이번 프로젝트 활동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두 협력기관의 공통사항인 ‘중일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그러다보니 시간도 오후 시간에 한정되어 진행되었고, 연령도 폭이 좁았으며, 참여 원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각 기관의 원내 사정과 각기 진행되는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계획되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각 기관의 기관장 및 교사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연초 계획부터 같은 시기에 협력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될 경우 시간적으로도 교사들이 준비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각 기관의 자원 원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사회성 훈련 및 협동교육의 기초 생활을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규모가 이렇게 확대될 경우 보다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연계학습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벼룩시장

소사어린이집과 소새울유치원

(경기도 부천시)

1. 협력 동기와 목적

소사어린이집은 친환경 생태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보육기관 중 한 곳으로 생태관련 연간교육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생태관련 교육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지구사랑! 자원 재순환 운동’이란 주제는 본원과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운동으로 매년 실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에 2009년에 진행되었던 「영차 프로젝트」의 협력기관이었던 소새울 유치원과 함께 ‘자원 재순환 운동’의 일환으로 유아들이 직접 참여, 그 의미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벼룩시장’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두 기관 유아들의 ‘벼룩시장’활동을 통하여 자원 재순환 과정의 체험 및 실천은 물론이고 더불어 유아 경제교육의 장으로 활용, 그 수익금은 관내 도서관에 어린이 생태도서를 구입, 기증하여 어려서부터 기부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회 째를 맞이하는 올해에는 「소사 & 소새울 장터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1부는 유아들이 참여하는 벼룩시장으로, 2부는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음식바자회로 진행되었다.

2. 협력 사전 준비 과정

1) 활동 계획 수립 및 협의 과정

- ① 두 기관이 상의하여 개최일정을 확정된 후 「장터 한마당」에 관한 안내문을 가정
에 배부, 본 프로그램의 목적 및 취지를 원아 가정에 알리고,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벼룩시장 물품 목록을 조사하였다.
- ② 「장터 한마당」 벼룩시장 물품 수집 : 2010. 10. 4. ~ 10. 20.
- ③ 소새울 담당 교사와 벼룩시장, 음식바자회에 관한 상세 일정 조율 및 계획 수립
- ④ 초대장 배부 : 2010. 10. 18.
- ⑤ 벼룩시장 물품 정리 : 2010. 10. 20.

2) 역할 분담

- ① 소사어린이집 - 「장터 한마당」 총 기획, 벼룩시장 물품 수집 및 정리(가격 책정 등), 음식 바자회 준비, 학부모 자원 봉사단 모집
- ② 소새울유치원 - 벼룩시장 물품 수집 및 구입, 재원 유아 가정에 장터 한마당 안내

3) 준비 과정의 문제점

2010년 「영차 프로젝트」 지원금이 10월에 지급되었고, 「영차 세미나」의 경우 그 일정이 2009년보다 약 1개월 정도 앞당겨지면서 학기 초 연간교육프로그램에서 계획했던 「장터 한마당」 일정에 맞추기는 실제적으로 어려웠다. 소사 어린이집과 소새울 유치원, 두 기관이 함께 행사날짜를 함께 조정하다보니 각 보육기관의 행사 및 사정 그리고 외부사정에 의해 일정을 확정하게 되어 「장터 한마당」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충분한 계획 및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져 아쉬운 점이 남았다.

또한 각 보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일정이 진행되다보니 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회의 시간을 따로 두기 어려워 전화상으로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준비 및 계획의 미흡한 점도 있었다.

3. 협력 실행 과정

1) 협력 활동 내용 - 「소사 & 소새울 장터 한마당」

- 일 시: 2010년 10월 21일 (목)
 - 1부 오전 10:30 ~ 12:00 ‘벼룩시장’
 - 2부 오후 4:00 ~ 8:00 “음식바자회”
- 장 소: 소사어린이집 및 윗 소사어린이 공원
- 프로그램: 아나바다 장터 (벼룩시장)
 - 전통놀이 한마당
 - 생태 먹을거리 장터 (음식바자회)

2) 실행방법 및 과정

< 1부 벼룩시장: 오전 10:30 ~ 12:00 >

- 행사 당일 오전, 소사 어린이집 공원 내 운동장에 물품을 가격별로 분류하여 준비하였다.

- 가격표는 삼각대로 만들어 물품 앞에 배치하였다.
- 모금함을 진열해 둔 각 물품 가운데 배치하여 아이들 스스로 구입한 물품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금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사 당일, 각 반 교사 중 한 명은 물품을 판매하고, 다른 파트너 교사는 각 반의 아이들을 인솔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약 10-15분의 시간차를 두고 반별로 차례대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운동장 한쪽에 전통 놀잇감인 투호를 배치하여 자유롭게 놀이를 하며 기다림에 지쳐하지 않도록 준비해두었다.
- 벼룩시장 물건 구입 후 소사·소새울 유아들이 함께 모여 어울려 전래놀이를 함께 즐겼다.
 - ⇒ ‘응마깽깽’ 놀이를 하여 술래를 정한 뒤 ‘여우야 여우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전래 놀이를 차례대로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2부 음식바자회: 오후 4:00 ~ 8:00 >

- 소사어린이집의 학부모 자원 봉사자들 및 교사들이 각 음식 코너에 배치되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 소사 & 소새울 가정에서 자유롭게 바자회 장소에 들러 당일 현장에서 쿠폰을 구매한 뒤 음식을 구매하여 시식하도록 하였다.

4. 협력 성과

■ 유아

작년 2009년에는 신종플루 유행 및 확산 위험으로 인하여 소새울 유치원에서는 벼룩시장 물품 지원만 하고 유아들은 참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올해는 소새울 유치원의 만 5세 유아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소사 어린이집에서도 유아반 뿐 만 아니라 영아반까지 확대하여 벼룩시장에 참여, 규모가 조금 더 커진 행사로 진행되었다.

소사 어린이집 재원 유아들의 경우 작년 ‘벼룩시장’ 활동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벼룩시장이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벼룩시장활동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벼룩시장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벼룩시장에 낼 가정에서 각자 가지고 온 물품들을 서로 비교해가며 자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지만 그 물건이 필요한 다른 친구나 동생에게 주고 싶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물건의 값과 친구가 가져온 물건의 값을 서로 예상해보거나 미리 가격을 책정하여 역할놀이를 통해 먼저 시장의 모습을 재연하는 등 ‘자원 재순환 실천운동’이 유아들

놀이상황 가운데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한정된 (유아들이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가져와 물건을 구입토록 함) 예산안에서 자신들이 직접 필요한 물품 구입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모습에서 교사 주도가 아닌 유아 스스로 돈의 쓰임과 가격에 따른 돈의 지출, 남은 돈의 범위 내에서의 예산의 재구성 및 계획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경제교육활동’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벼룩시장 활동 후 함께 전래놀이를 하였는데 소사어린이집에서 유아들과 함께 하는 옛 놀이 활동 중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외에 변형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들 (예: 향아리 꽃, 호랑이 꽃, 새색시 꽃 등)을 소개할 유아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전래놀이를 알려줌과 동시에 함께 활동을 하며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소사어린이집과 소재울유치원이 협력기관이기는 하나 각 기관에 재원하는 유아들이 서로 어울리거나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서로 어색해하며 쉽게 어울리기 어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어울림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래놀이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한 어색함을 자연스럽게 떨쳐내어 친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더불어 전래놀이 활동이 이루어진 이후 진행된 인형극 공연 관람 때는 유아들이 상대 기관 교사에게도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학부모

벼룩시장 물품 수집에서부터 정리 및 판매까지 학부모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이 컸다. 무엇보다 2부에 진행되었던 음식 바자회에서는 「전통 한마당」이 진행되기 전부터 음식 메뉴 선정과 장보기 및 당일 음식 조리과 판매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다. 소사어린이집의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되다보니 소재울 유치원 부모님들은 당일 음식 바자회에는 자원 봉사자로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장터 한마당」의 준비기간이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소재울 유치원 재원 유아들의 부모님들의 협조를 조금 더 이끌어내어 유아들의 협력과 화합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협력도 함께 이루어져 ‘한마당’의 의미 및 목적을 이루는데 더 큰 의미를 가졌을 거라는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이다. 소재울 유치원 어머니들의 자원봉사 참여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벼룩시장 물품 수집에는 적극 동참하여 주셔서 그 아쉬움을 조금은 달래주었다. 또한 올해 1학기에 진행된 부모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부모님들과 함께 한 활동이었던 「장터 한마당」을 통해 상대 협력기관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계획되어 활동하게 될 또 다른 「영차 프로젝트」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기대를 엿 볼 수 있었다.

■ 교사 및 기관장

벼룩시장이 올해는 규모면에서 조금 더 확대되어 진행되었고, 앞에서 아쉬운 점으

로 지적하였듯이 각 보육기관의 행사 및 외부사정에 의해 일정을 확정하게 되어 보다 심도 있고 충분한 계획 및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져 진행되는 각 기관의 교사들과 기관장의 어려움은 그 배가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활동 진행 상황 및 협조 그리고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일일이 담당 교사 및 기관장이 만나 회의를 하거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전화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일이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의사 전달 및 수렴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이해하거나, 진행하는 가운데 사소한 것이었으나 일의 중복 또는 빠뜨리는 사항들도 있어 에너지적으로도 많은 소비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정확히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만큼 두 기관의 유아들이 보다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에서 더 많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 귀한 시간이 되었다. 교사의 입장에서 가장 보람되었던 부분은 그 전에 시행되었던 교육프로그램 시행 시에는 상대 기관의 유아들과 활동하기에 급급해 서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공감할 기회가 충분치 않았지만 이번 「장터 한마당」활동에서는 물건 구입 시 우리네 전통시장에서 진짜 볼 수 있는 사람과의 교류를 배울 수 있었고, 더불어 놀이 활동을 통해 친근함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알찬 시간으로 기억되었다.

■ 지역사회 연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바자회 수익금을 관내 ‘한울빛 도서관’에 유아 생태 도서를 구입, 기증하기로 하였다. 소사어린이집과 소새울 유치원은 「영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질 여러 교육프로그램 및 바자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생태교육에 대한 이해확산과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매년 도서관에 생태관련 도서 등을 구입, 기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좁게는 내 자녀와 내 가족의 자원보호와 절약을 독려하고, 넓게는 내 지역사회와 나라에 대한 애정과 미래 자원보호의 의미로써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작은 첫걸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5. 협력활동 평가 및 향후 방향

1) 활동 평가

「영차 프로젝트」 협력 활동이 2년차에 들어가면서 작년에도 함께 했던 벼룩시장을 올해에도 계획하였지만 부천시의 어린이집 기관에 대한 「영차 프로젝트」지원금이 늦게 집행되어 행사 진행에 있어 물품 구입 및 시설 구비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영차 세미나」 일정이 작년보다 약 1개월 정도 앞당겨 진행되어 학기 초기에 미리 계획했던 일정에 맞추기란 매우 어려웠다. 결국은 주 핵심이 교육프로그램의 보다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활동을 계획, 검토, 실행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사정에 의해 일정이 잡히는 등 활동 계획 및 협력 기관과의 의견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교육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닌 단순 지역행사 성격으로도 느껴졌다.

매우 바쁘고 빠듯했던 준비기간에 비해 규모면으로서는 작년에 비해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준비 및 진행 과정 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발견되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각 기관별 행사가 절기적 특성으로 인해 비교적 많이 집중되어 있는 2학기 10월에 진행되어 두 협력 기관 간의 충분한 의견 교류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부분이다. 그러다보니 행사를 거의 한 기관에 편중되어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올해의 경우 ‘벼룩시장’을 계획했던 소사어린이집의 일방적인 주도로 거의 이루어졌기에 상대적으로 협력기관인 소재울 유치원의 경우는 행사 당일 프로그램의 일정 부분에만 참여하게 되어 완전한 유보 협력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할 수 있겠다.

2) 향후 방향

내년에도 역시 벼룩시장 활동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부천시역의 경우 「2011년 영차 프로젝트」활동에 대한 지원 예산이 현재까지도 계획되어지지 않아 협력기관과의 다음 활동계획 및 준비에 대한 의견교환 및 계획안 수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다 구체적이며 계획적인 프로젝트 활동에는 시간적인 여유는 물론 재정적인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예산이 연초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올해와 같이 10월에서야 뒤늦게 책정된다면 또 다시 진정한 유보협력의 「영차 프로젝트」교육적 의의 및 목표 실현과는 떨어져 일회적인 지역행사로서의 성격만 보여주는 것밖에는 될 수 없게 된다.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교사와 기관장의 측면에서도 타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예산 계획 및 집행 그리고 적극적인 교육에 대한 지원을 바라볼 때 상대적 허탈감으로 인해 교사의 사기도 떨어뜨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유보협력 활동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선진화되고 합리적인 교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 여건이 우선적으로 개선,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소사 & 소새울 장터 한마당〉



공동 교사교육

조은어린이집과 강릉사유치원

(강원도 홍천군)

1. 협력 동기와 목적

강릉사유치원과 조은어린이집 교사들은 ‘유아를 위한 최상의 교육은 교사의 교육적 자질과 전문성으로 평가된다’는 이념 아래 다양한 정보 교환, 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 도모를 위한 다양한 교사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렇지만 교사교육을 위해 업무 외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평일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과 각종 업무로 인해, 주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외부 강사를 기관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받기에는 높은 강사비가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다. 이에 기관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유보협력 기관과 함께 교사교육을 받는다면 교육의 효과와 더불어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공동 교사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 협력 준비 과정

가. 협력활동 계획 수립과 협의 과정

2011년 3월 강릉사유치원 어학실에서 조은어린이집 원감과 교사, 강릉사유치원 부장 교사가 모여 앞으로 진행할 3차년도 유보협력에 관한 내용에 대해 1차 협의를 갖았다. 이후 5월에는 각 기관의 교사 전원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전반적인 협력내용과 월별 협력계획을 수립하였다. 앞으로는 양 기관의 행사 일정이나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각 기관의 교사들이 모여 협의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1학기에는 강릉사유치원의 주최로 교사교육을 실시하고, 2학기에는 조은어린이집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교사교육 실시 전에 양 기관에서 원하는 교사교육의 내용을 추천받아 주제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후에 교

사교육 강의를 담당할 기관 내 교사는 양 기관의 유보협력 담당교사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교사교육 일정을 진행하였다.

나.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교사교육 준비과정 가운데 큰 문제점은 없었다. 이는 유보협력 3년차로서 그동안 협력기관 간의 긴밀한 상호관계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공동 교사교육 협력활동은 연수장소를 선정할 때도 양 기관의 교사들이 서로 배려하여 한번씩 장소를 제공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주말을 이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시간일정을 맞추는 부분에서도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교사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문제인 강사섭외도 쉽게 해결되었다. 양 기관에 레고교육과 관련하여 대학에 출강도 하고, 페이스페인팅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가 각각 있었기 때문에, 원내의 훌륭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3. 협력 실행 과정

가. 협력활동 내용

1학기에는 강릉사유치원의 주최로 레고 교육을 실시하였고, 2학기에는 조은어린이 집에서 페이스 페인팅을 주제로 공동 교사교육을 실시하였다. 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레고 세트를 이용하여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전개방식과 유아들과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2차 교사교육은 2011년 8월 27일 조은 어린이집 3세반 교실에서 페이스 페인팅을 주제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의 강사는 페이스 페인팅 1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 조은 어린이집 원감님이었으며,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페이스 페인팅 기초그리기 기법을 익힌 후 페이스 페인팅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사례까지 배워보았다.

나. 협력활동 실행 절차

1) 레고 교육

레고 교육을 위해 2011년 6월 11일 강릉사유치원 은하수 갤러리에 강릉사유치원 교사 4명, 조은어린이집 교사 8명이 모였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레고를 이용한 수업 전개방식과 상호작용을 주제로 강릉사유치원 원장님이 연수를 진행하였다. 레고 교육에 필요한 레고 브릭은 강릉사유치원에서 준비하였다. 레고 브릭을 이용한 수업의 도입, 전개, 결말을 알아보았으며 구체적인 수업전개 방식을 배워볼 수 있었다.

특히, 강릉사유치원에 레고 세트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사교육에 참여한 양 기관의 교사들은 1인 1교구를 이용하여 실제로 모의수업을 해보고 강사로부터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었다.



2) 페이스 페인팅 교사 연수

2011년 8월 27일 조은 어린이집 3세반 교실에서 강릉사유치원 교사 4명과 조은어린이집 교사 8명이 모여 페이스 페이팅을 주제로 교사교육을 받았다. 조은어린이집 원감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셨으며, 기초 그리기 기법부터 다양한 그리기 기법을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페이스 페인팅에 관심을 갖게 되어 교사교육을 받은 다음 월요일에 실제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그림을 손과 얼굴에 그려 줄 수 있었다. 두 기관 모두 매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페이스 페인팅을 배워서 행사 때마다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4. 협력 성과

원 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고를 이용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서 유아들이 즐거움을 느끼며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었음. · 교사들이 연수에서 배운 교육을 현장에서 활용해 봄으로써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었음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교사교육을 통해 교사들로부터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음으로써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짐 · 사교육비 경감으로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음 · 다양한 교사교육을 통해 교사들로부터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음으로써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짐
교사 및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을 배울 수 있었음 · 교사교육을 통해 페이스 페인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다양한 표현 기법을 유아들에게 활용해 줄 수 있었음 · 기관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자체 연수를 통해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 · 교사교육을 통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레고교육을 알게 되었으며 관심을 갖게 됨 · 다양한 교육적 정보와 기술을 알게 되었음 · 교사 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이해도가 높아짐 · 기관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자체 연수를 통해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

5. 협력활동 평가 및 향후 방향

가. 협력활동의 목표 달성 정도 평가

강릉사 유치원과 조은 어린이집은 교사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함으로써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환경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교육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연수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각 기관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불어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각 기관의 내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실시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까지 얻게 되었다.

나. 협력활동 계획 및 과정에 대한 평가

매월 첫 제주 수요일 마다 교사들이 모여 1차 협의회를 가졌으며 날짜가 정해진 후에는 담당자들이 서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수시로 연락을 하며 계획을 수정해 나갔다. 연수 일정의 시간, 장소, 연수 내용, 재료 등 협력 활동 계획은 적절하였다.

담당교사들은 교사교육에 대한 협력활동 이전에 유선전화를 통해 수시로 협의하였으며, 주최하는 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주었다.

주최하는 원에서 재료, 교구준비를 해주었고 양 기관이 교사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주어 큰 어려움은 없었다. 협력 활동이 끝난 후 간단한 평가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다음 협력활동 시 보완하기로 하였다.

다. 향후 개선 방안

강릉사 유치원과 조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저렴한 비용 안에서 교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교사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기관 내 인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사교육을 지속적으로 계획해 보기로 했다.

부모참여 협력

우리는 함께하는 어머니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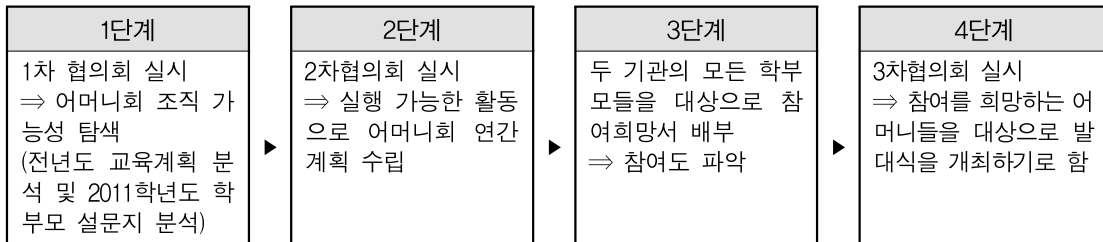
성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성지초등학교어린이집
(부산광역시)

1. 협력 동기와 목적

첫째, 학부모들에게 영차프로젝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차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하며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깊게하고 가정연계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2. 협력 준비 과정

가. 협력활동 계획 수립과 협의 과정



나. 기관간의 협력 역할 분담

구분	성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지초등학교어린이집
사전 준비 단계	연간계획수립 및 참여희망서 작성 등 서류관련 업무 담당 · 전년도 각종 행사 분석 : 학부모참여 관련 사항 분석 · 학부모 참여 동의서 배부 및 회수 · 어머니회 활동 및 발대식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 모으기	협의회를 위한 장소 준비 등 협의회 관련 업무 담당
실행 단계	· 어머니회 활동은 각 기관이 번갈아가며 주관을 하도록 한다. · 장소는 유치원의 시설을 이용하되 준비는 주관 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한다. · 참여 동의서 등 공동사용 가능한 서류 및 물품은 공유한다.	

다.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대면협의회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학내전산망(액티브)이나 전화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였다.
- 각 기관에서 당초에 수립하였던 행사 중 어머니회 활동으로 전환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 활동이거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행사는 두 기관이 적절하게 양보하기로 하였다.
- 어머니회 활동 일정 및 내용을 두 기관의 어머니가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3. 협력 실행 과정

가. 방침


-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다.
- 활동 내용은 배우고, 나누고, 봉사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월 1회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어머니회 활동은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 영차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 학부모참여 행사는 어머니회 회원이 보조교사나 활동도우미 역할을 맡도록 한다.

나. 활동 계획 수립

월	활동 내용	날짜	준비물	담당 기관
4	· 아토피에 좋은 천연스킨 만들기	4월 30일	비커 스킨만들기 약품	유치원
5	· 걷기대회 - 어린이대공원	5월 28일	구급상자 수수께끼자료	유치원
6	· 머핀 만들기 · 봉사활동 - 운동장 청소하기	6월 17일	오븐, 제빵재료, 접시, 빗자루	유치원
7	·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 · 봉사활동 - 교구 제작	7월 15일	오븐, 접시 제빵재료	어린이집
9	· 펠트로 만드는 장난감 · 봉사활동-화단가꾸기	9월 22일	오븐, 제빵재료 접시	어린이집
10	· 백양산 등반대회	10월 22일	구급상자 수수께끼자료	어린이집
11	· 인형극 공연 방법 알아보기 및연습	11월 25일	인형극용 인형	유치원
12	· 생과일 케이크 만들기 · 원아 대상 인형극 공연 · 봉사활동 - 인근 복지기관 방문	12월 17일	과일, 생크림 케이크틀	어린이집

다. 활동의 실제(예시)

1) 어머니회 발대식 실시 및 제1회 워크숍 실시

일 시	2011. 4. 30(토)10:00~12:00	장소	유치원 예쁜반 교실
활동명	발대식, 아토피에 좋은 천연 스킨 만들기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회'의 1년간의 사업계획을 안내함으로써 어머니회의 취지를 이해하고 어머니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직접 만든 천연 스킨을 통해 자녀들의 아토피를 예방한다. 		
준 비 물	스킨 만들기 재료, 전자저울 등		
활동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대식을 위한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회원 및 비회원대상으로 참석자 파악 - 천연스킨 만들기 시 보조교사로 활동할 어머니회 회원 사전모임 실시(4월 28일)하여 천연스킨 만들기 기법 익히기 2. 어머니회 발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소개 및 어머니회 상호 인사나누기 3. 아토피에 좋은 천연스킨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모듬별로 어머니회 회원으로 구성된 도우미 배치 - 천연스킨 만들기 - 활동 종료 후 교실정리정돈 및 평가 		
활동모습			


2) 가족 걷기 대회

일 시	2011년 5월 28일	장소	어린이대공원
활동명	가족 걷기 대회		
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 교원, 어린이 및 학부모 전원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함께 하는 ‘걷기대회’를 통해 체력을 기르고 동시에 가족 간 화목을 도모하고 두 기관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간의 친밀감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 행사를 공동진행함으로써 경비 및 업무 경감을 효과를 높임 		
준비물	게임 관련 준비물, 플랜카드, 학급깃발, 원아 이름표, 구급약품 등		
활동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당일 행사도우미 역할을 맡을 어머니회 회원 및 두 기관의 대표 교원이 어린이대공원 사전 답사, 이동경로 계획 - 참가가족 파악, 보물찾기 및 가족상 상품 및 필요 물품 구매 2. 행사 당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대공원 입구(학생문화회관)에서 가족별로 모인다. - 개회식 개최(일정안내) - 연령별로 나뉘어 걷기 및 보물찾기와 게임하기 - 폐회식(다(多)가족 참여상, 보물찾기상, 게임상 등 시상) - 평가하기 		
활동모습	   		

3) 머핀만들기 및 운동장 청소

일 시	2011년 6월 17일	장소	유치원 사랑반 교실
활동명	머핀 만들기, 운동장 청소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재료를 이용한 몸에 건강한 간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가짐으로써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 어머니회에서 만든 간식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운동장을 청소함으로써 자녀사랑과 봉사정신을 실천한다. 		
준비물	머핀 가루, 믹싱볼, 오븐, 포장 비닐 등		
활동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대상자를 파악하여 재료 준비 - 보조교사 역할을 맡을 어머니회 회원 4명을 대상으로 사전 실습 실시하여 기법 익히도록 하기 2. 워크샵 당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유치원교사가 강사가 되며 보조교사가 도우미역할을 맡아 함께 머핀을 만든다. - 머핀을 포장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선물한다. - 정리를 한 후 유아들이 사용하는 운동장 청소를 한다. - 평가하기 		
활동모습			

4) 천연모기 퇴치제 만들기

일 시	2011년 7월 15일	장소	유치원 사랑반 교실
활동명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모기퇴치스프레이로 유아들을 모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모님이 만든 모기퇴치스프레이 사용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다. 		
준 비 물	모기퇴치제 재료, 스프레이 용기		
활동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학부모 중 모기퇴치제 강사 희망자 섭외 - 참석자 파악하여 재료준비. - 보조교사 역할을 맡을 어머니회 회원 3명을 대상으로 사전 실습 실시하여 기법 익히도록 하기 2. 워크샵 당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가 강사가 강의를 하며 보조교사가 주축이 되어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모기퇴치제를 만들기 - 평가하기 		
활동모습			

4. 협력 성과

■ 유아

자신들을 위하여 어머니들이 직접 만든 간식을 먹고, 천연스킨, 모기퇴치제, 펠트로 만든 장남감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아졌으며, 유치원에서 어머니를 자주 접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정서적 안정감도 도모할 수 있었다.

■ 부모

첫째, 자녀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녀 사랑을 폭넓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전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걷기대회 등의 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두 기관에 방문하는 기회가 늘면서 두 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신뢰가 깊어지게 되었다.

■ 교사 및 기관

첫째, 각종 학부모관련 행사에 어머니회 회원을 보조도우미로 활용함으로써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경감이 되었다.

둘째, 학부모들과 자주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 유아들의 행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자주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유아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교수계획 수립의 기저를 제공받았다.

5. 협력활동 평가 및 향후 방향

가. 협력활동 계획의 적절성

전년도 학부모관련 각종 행사 내용 분석 및 2011학년도 학부모 설문 분석을 토대로 계획 수립 후 발대식 때 대면 인터뷰를 통한 의견 수렴으로 재조직하여 활동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각 기관 학부모의 특징을 반영한 계획수립으로 참여도가 높았다.

나. 사전 협의와 준비 과정의 적절성

담당교사들 간 학내 액티브를 이용한 수시 연락 및 협의를 함으로써 긴 시간 업무의

중단이나 각 기관 방문 없이도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

다. 협력 실행의 적절성

학부모 중에서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각 기관 재직 교사들도 강사를 맡음으로써 경비절감 및 친근감을 높일 수 있었다. 두 기관이 번갈아가면서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두 기관의 전 교원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활동이 원활하게 전개되었다.

모든 어머니회 워크샵 및 학부모관련행사에 어머니회 회원을 사전실습과 사전협의 를 가져 도우미를 활용함으로써 어머니회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보다 원활하게 행사가 전개될 수 있었다.

라. 향후 방향

실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다소 정적인 활동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차후에는 전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댄스 등 동적인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활동 첨가도 바람직 할 것 같으며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횟수를 늘림으로써 좀 더 다양한 활동 전개를 원하는 학부모의 참여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머니회 워크샵이 유아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으로 전개됨으로써 어머니들과 유아들 간 관계를 더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만들어 주어 차후에도 워크샵의 주제는 유아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차’ 프로젝트 유·보 협력 학부모 자원봉사

백조유치원과 YMCA어린이집
(부산광역시)

1. 협력 동기와 목적

‘영차’ 프로젝트 학부모 참여에 대한 활동을 고심하던 중 평소 백조유치원에서는 학부모를 주축으로 자율학부모회를 구성하여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었다. 이것을 ‘영차’ 프로젝트 유·보 협력 활동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에 의견을 물어 동의를 구했고, 어린이집의 학부모와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원봉사는 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무보수로 봉사하기 때문에 복지증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부모의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유아들에게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이웃 사랑 나눔을 배울 수 있고, 학부모에게는 새로운 경험, 성취감, 만족감, 폭넓은 인간관계 등 인격적 성장과 자신을 지각하는 경험을 통해 자아실현과 동시에 유아기 자녀교육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

2. 협력 준비 과정

가. 협력활동 계획 수립과 협의 과정

1) 활동 전

구분	백조유치원	YWCA부설 어린이집
봉사활동 참여인원 모집	자율학부모회장을 중심으로 임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인원을 파악함	원으로 연락을 주시는 학부모들의 인원을 파악함
봉사활동 홍보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로 시간, 장소 알림	
원에서의 협력	봉사활동을 하는 취지와 의미를 알리고 봉사활동 장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주며 학부모들이 함께 만나 인사를 나누고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	

2) 활동 후

백조유치원	YWCA부설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봉사활동사진 받은 후 봉사활동 협력일지 작성	봉사활동 협력일지 작성
봉사활동 사진 공유	
봉사활동을 하고 난 후 학부모 소감문 받기	
봉사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상황들 자율학부모회장을 통해 들은 후 다음의 봉사활동에 반영하기	

나. 기관간의 협력 역할 분담

구분	백조유치원	YWCA부설 어린이집
2010년 5월~9월	<input type="checkbox"/> 간단히 차 준비 <input type="checkbox"/> 두 원의 학부모가 운동장에 모여 인사를 나누고 활동 안내를 받은 후 백조유치원 차량으로 요양원으로 출발함	<input type="checkbox"/> 백조유치원까지 차량으로 학부모를 데려다 줌
2010년 10월~2011년 9월 현재	<input type="checkbox"/> 원의 차량으로 10시 30분까지 요양원으로 학부모 데려다 줌	

다.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백조유치원은 자율학부모회의 임원진을 제외한 다른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였고, YMCA부설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가 적어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두 기관 모두 봉사활동 시 차량운행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유아들의 견학일정을 미리 조정해야 하는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3. 협력 실행 과정

가. 협력활동 내용

각 원에서는 학부모 봉사활동을 하기 2주전부터 가정통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하였다. 봉사를 하는 주에는 시간 및 장소를 알려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할 수 있게 독려하였다. 또 각 원에서는 시간에 맞추어 학부모가 봉사활동을 갈 수 있게 차량으로 학부모들을 데려다 주었다. 또 요양원에 도착하여 두 원의 학부모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협력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협력활동 실행과정

1) 2010년 학부모 봉사활동

구분	내용
1차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WCA 어린이집 학부모들과 백조유치원 학부모들이 백조유치원 운동장에서 만난 후 인사를 나눈다. 봉사활동을 가게 될 장소 및 활동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는다. □ 봉사활동지를 작성한 후 봉사할 구체적 장소(조리실 돕기, 빨래하기, 배식하기, 어르신방 청소, 손·발톱 깎아드리기, 기저귀 개기, 어르신과 산책하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말동무 되어 드리기 등)를 협의한다. □ 봉사를 마친 후 봉사소감문 작성 후 두기관의 학부모들이 함께 점심식사나 차를 마시면서 봉사활동 후 소감 나누기와 평가를 가진다. □ 봉사활동에 많은 부모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에게 알려 독려하거나 홈페이지에 봉사 후 소감을 게시하기로 하였다.
2차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학부모 회장께서 어르신들을 위해 감자를 챙겨 가셨다. □ 두 번째 봉사활동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 사전 경험을 되살려 자신의 역할을 바꾸거나 그대로 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3차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봉사활동 때 역할을 바꾸어 하였더니 일이 손에 익지 않아 일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많아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로 고정적으로 역할을 정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다. □ 학부모 봉사활동 가는 날이 노인요양원에 봉사활동 하는 단체와 중복이 되어 학부모 봉사활동을 다른 날로 의논하라고 하셨다.
4차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봉사활동은 방학기간과 날씨를 고려하여 9월로 연기하여 진행하였다. □ 날짜를 잘못알고 가서 셋째 주 화요일로 날짜를 다시 확인하였다.
5차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을 두 기관이 함께 모여 출발하니 봉사활동 시간이 짧아 각 원에서 출발하여 평화 노인 요양원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 각자의 역할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였다. □ 어머니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율학부모 회장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6차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 사진 찍는 것은 역할분담시외 활동시작과 끝에 모여서 단체촬영 장면으로 찍기로 하였다.
7차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은 수익금으로 요양원에 갖다 드릴 떡과 과일을 준비하여 들고 가서 전달한다. □ 1월 봉사활동은 유아들 방학관계로 쉬고 2월에 다시 하기로 하였다.
8차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원의 졸업일정에 맞추어 봉사활동날짜를 학부모들에게 안내하였다. □ 마지막 봉사활동을 마치고 이때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학부모를 모시고 원장 선생님과 1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 2011년 학부모 봉사활동

구분	내용
1차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원에서 학부모님들이 모여 유·보 협력으로 진행될 학부모 봉사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고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출발한다. □ 요양원에서 두 원의 학부모님을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눈다. □ 봉사활동지를 작성한 후 각자 맡을 역할을 정한다. □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는다. □ 봉사를 마친 후 봉사소감문 작성 후 두기관의 학부모들이 함께 점심식사나 차를 마시면서 봉사활동 후 소감 나누기와 평가를 가진다.
2차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 졸업생학부모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해 같이 봉사활동을 하였다. □ 인근의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 홍보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3차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원에서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에게 봉사활동 점수가 적용되는 봉사활동카드 발급에 대해이야기 하여 부모님들이 유아들의 학교생활에 반영이 가능하도록 봉사활동 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
4차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아쉬움이 많았다는 의견이 높아 어머니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유아를 일찍 데려다 놓고 봉사활동 하러 가기, 어머니 들끼리의 카풀 제도)을 제시하였으나 꺼려하였다. □ 1학기 봉사활동은 7월로 마무리 하고 2학기 봉사활동은 9월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5차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원 식사시간 때 각 방에서 먹었는데 이번 달은 시범기간으로 넓은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니 장소까지 움직이는데 다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편 하지 않을까 생각하였지만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며 먹으니 더 보기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요양원의 담당자가 바뀌어서 봉사활동 때 일의 능률과 봉사활동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 일의 분담을 명확히 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학부모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섞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학부모 봉사활동 협력계획의 변경

	백조유치원	YWCA부설 어린이집
2010년 10월 이후~ 2011년 9월 현재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원의 협의 하에 계획될 예정인 봉사활동 일정을 요양원과 협의 하여 매달 셋째 주 화요일로 고정함 □ 봉사활동 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각 원에서 학부모들을 태운 후 차량으로 10시 30분까지 요양원으로 데려다준 후 학부모가 함께 인사를 나눈 후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변경하였음 □ 봉사활동 시 사진촬영은 단체사진(2회)로 제한 하였음 	

4. 협력 성과

구분	백조유치원	YWCA부설 어린이집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회씩 봉사활동 가는 것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받아 유아들에게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모델링이 됨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실천하는 어른들의 모습을보고 이야기를 전해 듣는 기회를 가짐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자기반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짐 □ 먼 훗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유아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함 □ 다문화가정의 학부모에게는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 □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서로 다른 원의 학부모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학부모로서 교육·보육에 대한 정보 및 유아의 양육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특기를 제공함으로써 자아발전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끼며 여가선용의 기회가 됨 □ 작은 일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짐 	
	다른 원의 학부모와 함께 유·보 협력활동으로 진행해 더욱 열심히 참여하는 마음을 가짐	유·보 협력활동을 통해 백조유치원에서 뜻 깊은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 감사의 마음을 가짐
교사 및 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부모들이 모이는 행사, 프로그램에서 적극 홍보하고, 봉사활동 참여 학부모께 그 활동을 인정해 주고 아이들에게도 안내하였음 □ 학기말에는 봉사활동을 참여했던 학부모들과 자리를 마련하여 그 동안의 봉사활동의 성과 및 보안점 등을 이야기하며 평가하는 시간을 가짐 □ 원에서 학부모에게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해결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였음 □ 원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유·보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됨 □ 학부모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두 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도를 높임 	
지역사회, 행정체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영차' 프로젝트를 모르는 지역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회가 됨.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비추기도 하였음 □ 사회공헌에 이바지 하는 기회가 됨 	

5. 협력활동 평가 및 향후 방향

가. 협력활동의 목표 달성 정도 평가

학부모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학부모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성취감, 만족감, 폭넓은 인간관계를 통한 자기실현을 이루는 것이었으므로 그 목표에 부합되도록 학부모 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본다.

나. 협력활동 계획 및 과정에 대한 평가

학부모들에게 ‘영차’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참여하는데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사회에도 ‘영차’ 프로젝트를 홍보하는데 효과적이다.

사전 협의와 준비과정에서 학부모 봉사활동을 알리기 위해 각 원에서는 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들께 적극적으로 홍보, 권장하였다. ‘영차’ 프로젝트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활동을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드려 이해에 도움을 드렸다.

학부모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직접 체험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매달 봉사활동가는 날짜와 시간을 협의하고 정하였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한 후 학부모들의 소감문을 받아 어머니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폈으며 소감나누기와 평가 시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활동에 임하기 위해 학부모 스스로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다. 향후 개선 방안

2010년에는 5월 ~ 2월까지 8회, 2011년 4월 ~ 9월 현재까지 5회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봉사참여자가 2년째 접어들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백조유치원은 자율학부모회를 주축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어린이집은 맞벌이 학부모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편이다. 그리고 졸업생 학부모 및 인근 지역주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하였다.

올해는 두 기관의 학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학부모 봉사활동 사진을 공개 및 활동소개를 통해 프로그램에 홍보를 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및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학부모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학부모의 사기 및 봉사활동 참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부모 봉사활동을 유치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학교에 가서도 봉사활동점수에 더할 수 있는 봉사활동 카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육아정책개발원에서 마련해주시면 참여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이것을 부모교육이나 가정통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봉사활동 사진〉



〈식사준비하기〉



〈말동무해 드리기〉



〈청소하기〉



〈빨래개기〉



〈손톱정리정돈〉



〈산책하기〉



〈안마하기〉



〈담소나누기〉

학부모 봉사활동 소감문

백조유치원 자율학부모회

2년째 자율학부모회에 임원으로 참여하면서 노인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원의 학부모와 함께 간다고 해서 많이 서먹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우려도 했었지만 막상 만나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이웃집 언니, 동생을 만난 것처럼 편하고, 같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된 입장으로 아이들 이야기, 육아정보, 교육·보육 정보를 나누며 쉽게 친해져 새로운 친구를 사귄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차’ 프로젝트 유·보 협력이라고 해서 선뜻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다른 원의 학부모와 어울리면서 ‘아! 이런 것이 바로 유·보 협력이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었고 또 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유·보 협력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우리 아이가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엄마 봉사활동 언제 가?’ 하고 물을 때 내가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과 나의 모습을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의 봉사활동이지만 내 인생에 커다란 보물을 안겨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 백조유치원과 육아정책연구소분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차량 지원을 통한 예산 절감

매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제일어린이집, 즐거운몬테소리어린이집
(강원도 홍천군)

1. 협력 동기와 목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대부분의 유치원에 차량이 없는 관계로 초등학교 현장 학습 때 함께 하지 않으면 많은 비용과 다양한 현장 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집의 차량지원의 협력은 비용 절감 뿐 만 아니라 유아들의 다양한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놀이, 체험활동 교육의 활성화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 협력 준비 과정

가. 협력활동 계획 수립과 협의 과정

2011년 3월 18일 세 기관의 기관장, 교사들이 함께 모여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협력 준비과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회의 안건은 2011년 연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작년에도 이루어진 제일어린이집에서 매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계속적으로 차량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협의도 결정되었다. 유보협력 「영차프로젝트」 관련 숲 유치원 차량지원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3. 협력 실행 과정

- 1) 한 달에 2번, 매주 수요일 숲 유치원 차량협조(총7회 대여비 40,000원)
- 2) 홍천보건소 차량협조(6월 23일 대여비 50,000원)
- 3) 홍천건강생명과학관 차량협조(7월 13일 대여비 50,000원)
- 4) 전통예절교육(9월 9일 대여비 40,000원)



제일어린이집 차량을 타고 있어요



숲 유치원 출발 전 차 앞에서



숲 유치원에서



흥천 건강 생명 과학관



흥천군 보건소



전통예절교육

4. 협력 성과

원 아	병설유치원의 원아들의 경우,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여 숲 유치원 체험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차량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 3,4,5세 유아의 경우, 소규모 소수인원이 모여 두레현장학습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현장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음
학부모	두레 현장 학습 등으로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졌다.
교사 및 기관	제일어린이집의 차량 및 기사지원으로 1회 300,000원의 비용을 1회 50,000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어 관광버스 차량대여료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음

5. 협력활동 평가 및 향후 방향

매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제일어린이집, 즐거운몬테소리어린이집 간의 차량지원 협력은 한 기관의 물적 자원(차량)을 활용하여 다른 기관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예산 절감의 효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 기관의 기관장과 교사들 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다. 차량지원 계획 및 과정 중에 제일어린이집의 측면에서 원 운영상 시간, 날짜를 변경해야 할 때는 매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담당교사와 원장과의 전화를 통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협의하고 조율함으로써 적절히 해결할 수 있었다.

유보협력 기관과의 차량지원을 통해 비용절감을 할 수 있어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각 기관의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영차 프로젝트를 통해 영·유아 부모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유보협력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KICCCE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시범연구사업
영차프로젝트 우수사례집

www.kicce.re.kr

110-734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 7, 10, 11층
Tel 02-398-7700 Fax 02-730-3313